

과학독서 문화사업
운영위원회

명예위원

전 호 환 총장 (부산대학교 총장)
김 세 연 의원 (국회의원)

운영위원

박 상 준 대표 (서울SF아카이브) - 운영위원장
정 영 미 교수 (부산대학교 생명과학과) - 부위원장
이 상 금 교수 (라트비아대학교 아시아학과 연구교수) - 위원
김 상 옥 교수 (경희대학교 물리학과) - 위원
윤 석 만 기자 (중앙일보 논설위원) - 위원

<과학독서 문화사업> 실무진

이 수 상 (부산대학교도서관 관장) - 총괄
장 향 자 (부산대학교도서관 기획홍보팀장) - 간사
조 현 민 (☎DRB 기업문화팀 이사) - 간사
김 미 선 (부산대학교도서관 기획홍보팀) - 실무
방 준 섭 (☎DRB 기업문화팀) - 실무

제 2 회

김진재 SF 어워드

수상작 모음집

“상상이 현실이 되는 세상”

세상은 변한다. 과학혁명이 일어난 이래 변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빠른 변화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하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고, 그래서 상상력이 필요하다. 지난 수백 년 간 변화를 주도한 것은 과학이었기에 사람들은 SF에서 상상의 단서를 찾는다. 하지만 잊지 말자. 결국 SF는 이야기이고, 모든 이야기는 현재의 우리에게 대한 것이라는 사실을.

김상옥 교수 (경희대학교 물리학과)

기술이 경계를 넘어 확장될수록 우리 자신, 인간이라는 존재에 관한 고민이 깊어진다. 점점 인간을 닮아가는 기계와 우리의 차이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우주 멀리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 인간이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될까? 젊은 청년 작가들이 SF적 상상력으로 조심스럽게 답하는 이야기에 마음이 설렌다.

김주영 SF작가 (부산토현중학교 교사)

창의성은 백지상태의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기보다는 기존의 스케치 위에 덧칠함으로써 발현되는 경우가 많다. 즉, 세상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 내기보다는 오히려 기존에 존재하던 이질적인 것들을 연결함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찾아낸다. 이번 수상작들 또한 우리에게 익숙한 소재를 SF적 상상력으로 매우 색다른 이야기를 만들어 냈다. 주변의 가까운 것들 속에서 이질적인 무언가를 찾아내는 작가의 독특한 시선은 독자들에게도 흥미로운 경험이 될 것이다.

윤석만 기자 (중앙일보 논설위원)

작품 속에 등장한 암흑물질과 같은 현대 우주론의 주요 소재들이 반가우면서도 낯설고 새롭다. 과학 문화 발전은 고정관념에 대한 비판과 새로움의 추구에서 비롯되므로, 상식의 틀을 벗어 버린 신인 작가들을 바라보는 것이 즐겁다. 나도 작가가 되는 꿈을 꾸어 본다.

이창환 교수 (부산대학교 물리학과)

SF는 과학을 기반으로 하여 상상력으로 완성된다. 이런 특성이 SF를 매력적으로 느끼게 하는 듯하다. 김진재 SF 어워드 수상작들은 한 사람의 작은 상상을 시작으로, 알고는 있지만 풀어내기 쉽지 않은 주제들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기발하게 펼쳐나가고 있으며, 읽는 재미가 있는 작품들이다. 이런 다양한 작품들을 발견하는 것 자체가 귀중한 경험과 기회였다. 끊이지 않을 상상력과 과학의 조합으로 앞으로 더욱더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기회가 오길 바란다.

정영미 교수 (부산대학교 생명과학과)

주최



DRB

주관



DRB

협력기관



제 2 회

김진재 SF 어워드

수상작 모음집



부산대학교도서관

제 2 회

김진재 SF 어워드

수상작 모음집



“꿈과 이상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과
함께 하겠습니다.”

혁신적인 사고와 교육기회 확대를 통하여 미래 청년 인재양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했던 부산 출신의 큰 정치인이자 기업가, 김진재 회장의 뜻을 기리고, 대한민국 청소년 및 청년들이 자신의 창의성과 도전 정신을 마음껏 펼칠 기회를 마련하고자 <김진재 SF 어워드 공모전> 을 추진합니다.

2018.01.12. 과학 및 SF 창작문화사업 MOU 체결
협약당사자 - 부산대학교 · 국회의원 김세연 · (☎)DRB동일, 동일고무벨트(☎)

2018. 제1회 김진재 SF 어워드 개최

2019. 제2회 김진재 SF 어워드 개최



김진재 SF 어워드 홈페이지 <http://ssfc.pusan.ac.kr>

제 2 회

김진재 SF 어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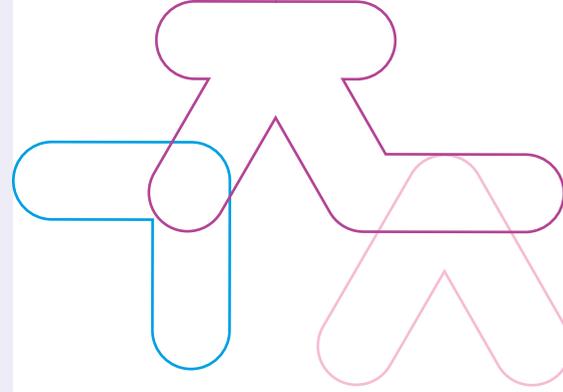
수상작 모음집





이 도서는 과학인재의 조기 발굴 및 육성을 목적으로 부산대학교와 DRB가 전국의 초·중·고등학생 및 만 27세 이하 성인을 대상으로 공동 개최한 '제2회 김진재 SF 어워드' 공모전 수상작 모음집입니다.

수상작품은 공모전 홈페이지 (<http://ssfc.pusan.ac.kr>) 에서도 보실 수 있으며, 공모전 운영 규정에 따라 저작권 보호를 받는 창작 작품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Prologue

2018년에 이어 2회를 맞은 2019년 '제2회 김진재 SF 어워드'는 창의적인 과학인재를 발굴·육성할 목적으로 부산대와 DRB가 공동 개최한 SF 창작콘텐츠 공모전입니다. 전국의 초·중·고등학생 및 만 27세 이하 성인을 대상으로 2019년 6월부터 넉 달간 공모전이 진행되었습니다.

'우주에서 인간은 혼자인가'를 주제로 한 제2회 김진재 SF 어워드는 △문학(시나리오 시놉시스, 단편소설, 에세이) △그림(웹툰, 단편만화) △영상(UCC, 광고, 단편영화) 등 3개 부문에서 총 65개 작품이 출품되었습니다. 치열한 예선 심사를 거쳐 성인 3편, 청소년 3편 등 최종 6편의 작품이 2019년 11월 16일 'DRB 사회공헌플랫폼 Campus D'(부산 금정구 금사동)에서 본선대회에 올랐습니다.

예선심사와 본선대회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자가 가려졌습니다. 수상자에게는 부산대학교 총장상과 더불어 성인부문 대상 300만원, 최우수상 200만원, 우수상 100만원, 청소년 부문 대상 150만원,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50만원의 상금을 수여하였습니다. 이에 제2회 김진재 SF 어워드 수상작을 모아 작품집을 발간합니다.

수상작품은 공모전 홈페이지 (<http://ssfc.pusan.ac.kr>) 에서도 보실 수 있으며, 공모전 운영 규정에 따라 저작권 보호를 받는 창작 작품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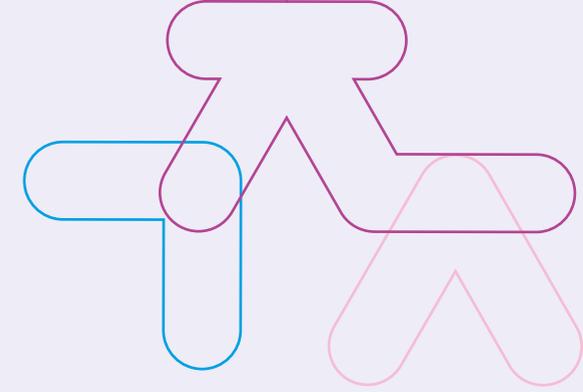


제2회 김진재 SF 어워드 본선대회 2019.11.16(토) Campus D 고존홀

Contents

발간사	10	청소년 부문	88
성인 부문	14	대상 <i>시일레</i>	88
대상 <i>Mr. 지구</i>	14	신준우·김지희·이원석·주치현 (부산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전희성 (일반인)		최우수상 <i>언제나 빛나리</i>	100
최우수상 <i>남겨진 자들</i>	50	이향미 (부산 양덕여자중학교)	
정지현 · 이정하 (국민대학교 미술학부 회화전공)		우수상 <i>마지막 인간 (A last person)</i>	114
우수상 <i>은혜</i>	62	이은용 (대전 관저중학교)	
서진교 (부산대학교 철학과)		심사평	140

발간사



어린 시절부터 SF를 '공상과학'으로 들었던 것 같다. 소설형식의 작품, 영화와 만화로 된 작품들을 많이 접했던 것 같다. SF소설은 우리나라에서 자생한 것이 아니고, 19세기 무렵 외국작품들이 수입되고 번안되면서 대중들에게 알려졌다. '공상(空想)은 "현실적이지 못하거나 실현될 가망이 없는 것을 막연히 그리어 보거나 또는 그런 생각"으로 사전에 정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상과학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과학인데, 아마도 19세기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의 SF 작품들을 처음 접할 때, 공상적인 과학 소재를 다루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도에서 붙여진 이름인 듯싶다. '공상'과 유사하지만 좀 더 부정적인 어감의 '망상(妄想)'(이치에 맞지 아니한 망령된 생각)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 여겨진다.

SF에서 과학적 소재는 우주, 하늘, 지하, 해양, 로봇, 유전공학, 지구 재앙, 환경오염 등과 같이 그동안 인류가 미처 다가가지 못했거나 경험하지 못한 장소나 기술, 현상이 대부분이다. 최근에 자주 접하는 "상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문구를 빌어서 보면, SF 작가가 상상을 하고, 과학자들은 그것을 실현하면서 과학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지? 그렇다면 SF는 '과학적 상상물'을 통칭하는 것이 된다.

<김진재 SF 어워드>는 전국의 초등 고학년생 이상, 20세 청소년들에게 과학적 상상을 자극하고자 부산대학교 도서관과 지역기업인 (주)DRB가 주관하는 행사이다. SF를 통해 창의적인 과학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8년부터 시작하였으며, 'PNU SF데이'라는 부대행사를 통해 'SF 전시회', '초청강연회' 등도 함께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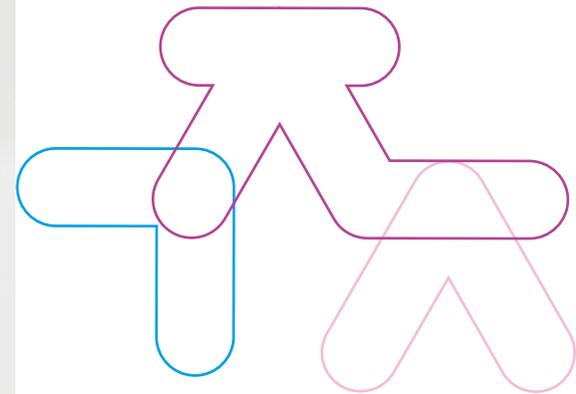
'우주에서 인간은 혼자인가'를 주제로 진행한 2019년도 <김진재 SF 어워드>에 문학(시나리오 시놉시스, 단편소설, 에세이) 그림(웹툰, 단편만화) 영상(UCC, 광고, 단편영화)의 3개 부문에서 총 65편의 작품이 출품되었다. 이 중에서 예선 심사를 거친 6편(성인 3편, 청소년 3편)의 작품은 본선 대회를 통해 현장 발표를 하였고, 심사를 통해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작품들이 선별되었다.

2019년도 <김진재 SF 어워드> 수상작들을 대상으로 형식을 갖추어 편집한 작품집을 발간하기로 했다.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을 것이며, 2020년에는 좀 더 보완할 것이다. 작품집을 보시고, 도서관으로 많은 조언을 바란다.

부산대학교 도서관장 이수상

성인부문

- Mr. 지구 ■
- 남겨진 자들 ■
- 은혜 ■



성인부문-대상 (단편소설)

Mr. 지구

전희성 (일반인)

작품소개

사회의 가장 외로운 곳에서 싸우는 공시생과 것처럼 저마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구 종말'이라는 일견 어처구니없는 재앙이 닥친 순간 그들의 거주공간이 우주선으로 변형되어 우주로 발사된다. 그것은 옛 학자들이 미래 종말에 대비해 만들어 둔 것. 생존과 동시에 우주난민이 된 이들은 뒤늦게 온 누군가에 의해 자신들이 처한 상황의 진실을 알게 되는데...

심사평

거칠지만 신선한 발상이 돋보였다. 발표에서 사려 깊은 주제의식이 잘 드러나 작품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문장 등 기본기를 더 다듬어서 앞으로 작가로서 긴 호흡으로 정진하기를 바란다.

나는 이제 내 고통을 이해할 수 없게 됐다. 누군가 고통을 주려고 나를 만든 것만 같다. 며칠 전부터 이런 불쾌한 생각들이 내 머릿속에 새까만 우주처럼 차올랐고, 다만 ‘합격’이라는 희망 한 가닥이 우주복에 달린 구멍처럼 아슬아슬하게 나를 잡고 그 속을 어색하게 유영하게 한다. 경찰 공무원 시험을 일주일 앞둔 나는 '우지'다.

채워진 한숨과 한여름 젊은 남자가 땀을 흘리며 이미 터질 듯 답답한 고시원 벽면 달력엔 지나온 날짜들에 X가 쳐져있고, 일주일 후 '지옥 탈출'이라고 적힌 날에 빨간 동그라미가 수십 번 그려져 있다. 달력을 산처럼 올려보며 선 우지는 흐르는 땀에 부채질로 겨우 버틴다. 그러다 쿵쿵거리곤 허둥대며 뛰쳐나가 멀리서 작은 소란을 피운다. 이에 문고리에 걸려있던 검은 쓰레기봉지가 떨어져 지느러미 같은 비닐이 지열(地熱)에 느물거리며 녹듯이 쓰러지려는 찰나, 웬 냄비를 들곤 방으로 들어와 얼른 내려놓았다. 뜨거운 손을 식히려 바닥에 댔지만 도리어 익으란 듯이 타오르는 열기를 선사해 우지를 필적 뛰게 했다.

“시끄럽다, 우지야.”

옆방에서 벽을 두드리며 나지막하게 말했다. 같은 공시생이자 친한 형이다.

“미안해요... 시우 형”

우지는 민망해져 선채로 라면을 깨작거렸다. 휴대폰 뉴스엔 환경오염과 산업설비노후 문제가 심각하단 기사가 나오지만 우지는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률 하락 기사가 더 신경 쓰인다.

3년차 공시생인 우지는 출제된 문제의 적합성을 평가할 정도의 실력이었다. 하지만 결국 종이 자기머리를 못 미는 이치일까. 당면한 시험에서는 맥을 못 폈다. 우울한 우지의 마음을 누군가 두드린다, 아니 두드려진 건 방문이었다. 찾아오는 이들의 용무는 대부분 공과금이나 월세요구였으므로 거의 대인기피가 걸릴 지경이 된 우지는 불안해하며 문을 살짝 여는데 상대방이 확 열어 재긴다.

“이번 달은 안 밀릴 거지?”

파마 롤을 만 채 불쑥 남의 공간을 침범해 큰소리를 치는, 이 고시원의 주인아줌마다. 고압적인 태도에 우지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인다.

“다음 달부터 월세 3만원 오를 거야. 알지? 요새 물가가 말도 안 돼 쪼잖아. 공시 준비하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 잘 알거 아니야.”

“오히려 더 모르죠.”

아줌마는 반항적인 우지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학생?”

우지는 괜히 심기를 건드리지 말자는 생각에 화제를 돌린다.

“...지금도 밀리고 있다고요.”

“그렇다고 학생만 봐줄 순 없잖아. 방세 밀린 게 자랑도 아니고 그렇게 말하면 곤란하지. 근데 학원, 뭐 독서실 같은 덴 안가?”

무슨 상관이나 묻고 싶었고 고압적인 태도가 불쾌했지만 실질적 잘못은 자신에게 있었으므로 입만 삐죽 내민다. 주인이 할 말 안 할 말 다 토하고 나가자 우지는 외시경을 통해 밖을 확인한다. 그리곤 ‘굳이 외시경까지 달아서 방세를 비싸게 받냐..’며 중얼거린다. 다른 사람들처럼 돈이라도 있어서 학원을 갔으면 이 시간에 이런 불쾌한 상황을 안 겪어도 됐었다고 생각한다. 지구에서 자신만 힘든 느낌에 입맛마저 없어져 남은 라면을 버리러 공용식당으로 향한다. 켜놓은 스마트폰에서 지진재난경보가 울린 건 그 때였다. 라면잔반을 처리하는 우지는 이 순간에 결국 봐야 할 걸 못 봤다.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고시원 안에 몇 없던 사람들은 고개만 조금 내밀곤 당황했다. 틀어놓은 수도물에 자신의 침울함을 실어 보내던 우지는 닫힌 식당 문 너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짐작도 못했다. 알았지만 그냥 이대로 죽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여긴 걸지도 모른다. 불 꺼진 식당에서 고개를 숙인 채 설거지를 하고 있는 우지 옆 작은 창문으로 환한 대

낮에 무너져 가는 건물이 보인다.

“우지! 뭐 하나, 빨리 안 나가고!”

저 세계 어딘가로 넘어가던 우지의 의식을 붙든 건 시우였다. 우지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지진을 느껴 소스라친다. 생각보다 상황은 심각해서 야트막한 집들과 구조물들은 갈라지는 지대에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다. 켜놓은 우지의 스마트폰에선 [지구촌 사상최대의 재난]이라면서 앵커들과 특파원들이 침착한 대화를 주고받는다. 이 고시원도 예외는 아니었다. 건물 자체가 요동을 쳤는데 그 진도가 지진 자체의 강도보다 훨씬 강하며 기계적이었다. 그런 건 알 리 없고 ‘그 비싼 월세를 주는데 이렇게 흔들리나’는 생각을 하며 식당 문을 열자 널브러진 신발들과, 물건들이 금방의 혼란함을 보여줬다. 우지도 밖으로 나가려다 탈출을 재촉하는 시우에게 먼저가라고 하고 방에 들어가 서랍을 뒤져 공책 몇 권을 꺼낸다. 자기가 그린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시우가 방문을 열며 다그치자 시우도 챙겨야 할 걸 챙기겠다. 지금 그게 중요한 질책에 우지는 눈을 부릅뜨고 말한다.

“그럼 뭐가 중요한데요!”

혀를 차면서도 시우 자신도 방으로 들어간다. 우지가 간단히 짐을 챙겨 공책을 바라보며 일어서려는 순간, 갑자기 프레스기가 위에서 누르는 듯 엄청난 압력에 눌러 쓰러졌지만, 그 순간에도 공책을 꼭 쥐

고 있다.

번쩍 눈 뜬 우지는 앞이 안보여 또 기절할 뻔 한다. 시력을 잃었다고 짐작하며 몇 번 눈을 깜빡이고 주무르니 희미하게 보인다. 불까지 꺼진걸 보고, 방과 함께 땅에 묻혔고, 자신이 결국 재난의 희생자가 되었다고 체념한다. ‘구조대는 언제, 어떻게 오는 걸까. 뉴스에서 처럼 기적적으로 구출될까. 근데 난 왜 괜찮지? 몸이 다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하지, 작년에 붙었다면 이런 꼴을 안 당했을 텐데. 하고 싶었던 미술을 했다는 이유로,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결국 이런 꼴까지 당해야 하는 걸까.’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우지는 문을 열기로 한다. 위험할 수도 있지만 이전 상관없었다. 우지는 그렇게 행동하기로 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다. 문 쪽으로 움직이려던 우지는 자신의 몸이 떠있다는 것을 느낀다. 사물들까지. 이상함에 문을 열기 직전, 방을 확인하기로 한다. 전화는 안 되는 휴대폰 플래시를 켜 방 안을 확인한다. 물건들이 떠있다는 거 말곤 오히려 너무 멀쩡했다. 이상할 만큼 튼튼한 느낌이다. 쓰러진 새 우렁이 각시가 몰래 수리한 느낌이다. 불빛으로 창문을 비추자 철판으로 봉쇄된 걸 확인한다. 알 수 없는 상황에 꿈이라고 여기고 싶을 만큼 두려워져 좁은 방안을 배회하며 물건들과 부딪힌다. 한줄기 빛을 보기 전까지. 문의 외시경에서 들어온 빛을 쫓아 허공을 헤엄쳐 거의 빠질 듯 눈을 대자 빛은 멈추고 광원이 되는 곳이 희미하게나마 보인다. 최대한 뚫어져라 쏘아보는 우

지의 시선에 똑같이 자신을 쏘아보고 있는 사람의 광기어린 눈이 스치며 그 안광이 번쩍인다. 우지는 놀라 물러난다. 그 사람이 있는 공간이 바로 앞인지 잠시 쿵쿵거리는 소리가 고스란히 들려온다. 그러다 일순, 쿵! 하며 우지의 방문이 무언가에 세계 받힌다. 다시 외시경을 통해 밖을 보니 그 사람의 공간이 금방의 충격으로 점점 멀어지며 한눈에 파악되기 시작한다. 그쪽도 방이다, 문이 열린. 어떤 영문인지 그 방은 열은 어둠속에 부유(浮游)하며 천천히 회전마저 했다. 이내 그 열린 문에서 사람이 뛰쳐나와선 역시 허우적대며 부유한다! 그런데 숨이 막히는지 목을 잡고 한참을 허우적거리더니 이내 육신이 터진다. 터질 때의 핏방울이 우지의 외시경에 튀어서 죽어가는 광경까지 목격하진 못했지만 완전히 겁에 질리기엔 충분했다. 오류로 잠깐 켜진 스마트폰에선 차량광고가 나오는데 <놀라움의 연속, 앞으로도 이어질>이란 문구다. 우지는 소매로 외시경을 닦아보지만 밖에서 튕피가 안에서 닦일 리 만무하다. 그러다가 미끄러져 손잡이를 잡게 되자 어떻게든 안 열려고 안간힘을 쓴다. 그러다보니 손잡이가 상하가 아닌 전후로 잡아당겨졌는데 딱 권 손가락이 손잡이 안쪽에 있던 요상한 빨간 버튼을 누른다.

"우주선 완전전환 및 비상전력 가동"

방에 설치된 경비실 연결용 스피커에서 영어가 흘러 나왔지만 영어 듣기로 단련된 우지는 단박에 알아들었다. 그리곤 방에 불이 켜진다.

물건들과 자신이 확실히 떠있었다. 놀란 토끼눈이 된 우지가 그 광경을 감상하는 것도 잠시, 곧장 다시 중력이 생기며 사물이 바닥으로 떨어진다. 허리를 부여잡고 골골대며 일어나 상황파악에 나선 우지.

"조작을 해십시오"

방을 둘러보던 우지 앞엔 이제야 온전히 밖을 비추는 창문이 보였다. 우지는 두려움과 호기심을 가득안고 서서히 창문 쪽으로 향했는데 그 기대를 충족시킬만한 것이 시야에 들어왔다.

지구였다. 그것도 아주 처참한 꼴의.

인터넷에서 흔히 봐왔던 지구라 실물로 처음 본 이 순간에도 이성적으로 식별했지만 그보다 마치 잃어버렸던 혈연을 처음 만났을 때의 직감에 가깝다. ‘이게 내가 살고 있는 돌덩어리구나.’ 그러나 옷이라도 입은 듯 황색 가스들과 화염에 뒤덮여 형체를 알아보기도 힘들어져 있었다. 우지는 라면을 먹을 때 본 설비노후문제가 생각났다. 이 모든 상황에 왈각 흐를 것 같은 눈물을 꼭 참고 있는 와중, 창문에 디지털 인터페이스가 띄워진다.

[가 호흡 산소 80%]

[습도 50%]

[Wi-Fi Off]

분류별로 진단된 상황들을 보고 별의별 생각이 든다. 오늘은 아직 운동 전이라 산소가 많아 다행이고, 며칠 전 온 비 때문에 습기가 남아있어 다행이고. 사실 집이 노후 돼서 그런 거지만 이럴 땐 또 도움이 된다고 생각 되면서도,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끝까지 안 알려준 주인이 야속할 따름이었다. 문제는 비상 전력이다.

[비상 전력 48%]

월세가 밀려서 그런지 남은 전기량이 얼마 없었다. 주인이 너무 야속했다.

[개체 간 소리 수 발신 / 가능]

다른 건 소설이나 게임에서 봤던 걸로 이해했는데 이 문장은 바로 해석이 안 됐다. 고민하며 소리가 난 스피커를 유심히 보니 작은 구멍이 있다. 반사적으로 소리를 내봤지만 반응은 없다. 희미하게 나는 작은 소리에 귀를 대보니 시선은 자연스레 스피커의 측면을 가까이서 응시하게 되었고, 그 시선에 유난히 볼록 튀어나온 버튼이 들어왔다. 자연스레 눌러보니 지지직대는 기계음이 났다. 그때 재채기가 나왔는데 들려오는 소리는 사람들의 놀라는 소리였다. 뭔가를 깨달은 듯 어금니를 꼭 문 우지의 얼굴에선 땀이 얼굴의 수염을 하나하나 훑으

며 흐르고 있었다. 곧 턱으로 모여 떨어지고 바닥에 떨어지며 물 파장을 일으키자마자 우지는 마이크에 대고 자신이 했던 방법을 고래고래 소리쳤다. 한국사 1타 강사의 방식을 떠올리며.

여행이라고는 부모님을 따라 경주에 간 것이 고작이고 특별한 경험이라고는 그 곳에서 ATV를 타본 것이 전부인 우지는 창문으로 보이는 망해가는 지구에 놀래야할지, 갑작스럽게 떠나 온 우주여행에 놀라야 할지, 그 여행객이 자기만이 아니라는 것에 놀라야 할지를 몰라 또 놀랐다. 우지가 불시착한 우주 한복판엔 대부분의 집들은 다 고시원 같은 작은 방이거나 인도 같은 나라의 판자촌이었다. 지구근처를 동동 떠다니는 집들의 향연은 충격적이었다. 그 상태로 집 정리를 하다가 자신의 노트를 주운 우지는 충격과 슬픔 따위의 지구의 감정을 뒤로하고 현실을 철저히 파악하기로 했다.

집의 전체적인 조작은 에어컨 리모컨으로 했다. 왜 멀쩡한 최첨단 창문을 놔두고 실내등을 켜려면 눌러야 하는 게 [강풍]버튼인지 [미풍]버튼인지도 모를 리모컨으로 이 허름하게 엄청난 '고시원 우주선(사람들은 고주선이라고 불렀다)'을 조작해야하는지도 몰랐지만 생존 앞에 그런 물음은 무의미했다. 창문이 있는 집은 창문으로, 창문이 없는 집은 외시경에 얼굴을 인식하면 외부영상송출이 가능해서 그 모습으로, 그것도 안 되면 소리만으로, 아무런 시청각 장치가 없는 이들은 그저 듣기만 하고 집의 움직임(로켓 추진체가 달려 이동이 가능

했다)으로 긍정과 부정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은 대화를 해나갔다. 대부분 한국인이거나 동양인이고 일부는 미국이나 유럽 사람이었다. 그러나 최근 잘된 우지 누나에게(대출이지만) 새 집을 선물 받은 부모님의 집은 보이지 않았다. 어쨌거나 그들은 상황에 대한 합리적 판단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토론했다. 물론 아무리 얘기를 해봐도 유의미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다들 좁은 방에 변변찮은 물품들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라면을 끓이는 등의 행위를 하던 이들이 비상탈출 중에 다쳐 응급구호물자를 어떻게 발신할지 등과 같은 눈앞에 닥친 '현실'만 해결하는 것도 바빴다. 우주에서도 우선이 현실문제 해결이라는 점이 우지를 다시 슬프게 했다.

답은 의외의 곳에서 나왔다. 한창 떠들고 있을 때 가장 마지막으로 그들의 우주 한복판에 도착한 집에서. 그 집은 상대적으로 컸다. 오피스텔이었으므로. 소통을 시작하고 알게 된 그 여자는 기계치에 한 짝은 열혈 화훼업자인 지화였다. 지화가 늦게 오게 된 이유는 자명했다. 오히려 그 당사자만 모를 법 했다. 그 집에 뒤로 묶인 단단한 와이어는 꼬리처럼 길게 이어져 있었고 끝엔 커다란 바위가 달려있었다. 외국인들 중 몇몇은 '왜 고환을 달고 왔나?'며 놀라고 웃겨했고 다른 사람들의 가리킴으로 그 바위를 본 지화는 졸도했다. 졸도한 지화를 깨우느라 비상구호물자가 또 하나 줄었고 배틀 그라운드에 환장한 시우는 '구상 아깝다'며 짜증을 냈다. 기계치인 지화는 사람들의 친절 한 안내대로 힘겹게 고주선을 작동시키고 연결시켰다. 그런데 지화

의 스피커에선 한마디가 더 나왔다.

"사용설명서를 확인하십시오."

절약장이인 지화는 한참 안 쓰던 에어컨의 사용설명서를 꾸역꾸역 찾아 읽는데 맨 뒤에 QR코드를 스피커의 지시대로 창문에 인식하니 -사람들의 많은 도움이 있었다- 또 다른 사용설명서가 나타났다. 그 설명서는 이 고주선의 작동법이며 제작 보고서였다. 영어로 된 그 설명서를 읽어주고 외국인들이 해석을 해주는 식이었다. 그렇게 파악된 전사는 괄목상대할 만했다.

근대의 한 윤리과학자가 노파심에 진행한 연구에서 인류는 결국 욕망과 무책임한 발전으로 인해 자멸할 것이란 결과가 나와 자신이 주장으로 있는 '궁극윤리를 위한 전문가들의 학회'에서 [현대판 노아의 방주 프로젝트]의 필요성을 주장, 아슬아슬하게 과반수로 작업에 착수, 시행했다.

프로젝트의 개요는 유사시 우주선으로 이용 가능한 구조로 사람 한 명이 겨우 들어갈 정도의 작은 방을 설계해 세계 각지에 분포해놓는 것이다.

핵심적으로 유사시 날아갈 집들 중에서 가장 튼튼하고 가능성 있다고 판단되는 집들에 우주개척을 위한 '씨앗'을 매달아 놓았다는 것이

다. '크기를 줄인다고 줄였지만 너무 거대해 집에 매달 수밖에 없었던 점을 양해해 달라'고 적혀있었다. 그러니까 매달려있는 바윗덩어리가 씨앗, 곧 지구의 씨앗이었던 것이다. 이 대목에서 지화는 또 한 번 실성했고, 시우는 구급상자 소모에 아쉬워했다.

프로젝트에 착수한 이 집단은 그들 스스로를 노아(NOAH)를 거꾸로 적어 하온(HAON) 이라고 칭했다. 하온은 이 무지막지한 프로젝트를 반드시 성사시키기 위해 몇 세대에 걸쳐 그들만의 정보를 비밀리에 세대전수하기로 했다. 게다가 세대를 거친다는 위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식들이 다른 진로를 택하는 등의 이탈이 있을 경우 그 집은 프로젝트에서 제외될 정도로 엄격하게 진행했고, 인부들에게도 비개방적이고 강압적인, 비상식적인 업무진행을 요구했으므로 실질 노동자의 공급이 부족해져만 갔다. 그로 인해 완성이 되어감에 따라 오히려 속도는 현저히 느려지는 기현상이 발생했다.

결국 현재에 이르러 그 고시촌, 판자촌, 또 반지하와 같은 유사거주는 그곳에 거주하는 이도 그곳을 소유한 이도 모르는 진실만이 도사리고 있게 된 것이다. 재밌는 점은 하온의 애초 목적은 부르주아들의 '날아다니는 방공호'같은 느낌이었지만 현대로 오면서 주거개념이 '부자=큰 집 거주'가 되면서, 그 작은 방은 아이러니하게도 상대적으로 가난한 이들의 차지가 된 것이다.

설명서에 적힌, 장차 지구가 될 이 씨앗의 원예방법은 의외로 간단

했다. 기존 식물이 자라기 위해선 물과 햇빛 등이 필요하지만 지구가 자라기 위해선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다. 이 대목이 중요한 것은 정말로 그 무엇의 작은 요소라도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었다. 최초발아만 안정적으로 한다면 기존 행성탄생원리에 따라서 '알아서 클 것'이라는 이론이었다.

모두들 황당해했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던 행성의 탄생은 큰 먼지 덩어리가 모이고 모여서 사이즈를 키우고 중력을 키워 비슷한 크기의 다른 행성끼리 영겁의 시간동안 싸워야만 겨우 쟁취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이 설명서대로라면 무슨 꽃을 키우듯 간단하고 빠른 일처럼 보였다. 모두들 믿지 못하는 분위기 속에서 지화는 다음의 내용을 읽었고, 그제야 하나 둘 신기해하며 믿음을 가지는 분위기였다.

그 내용인 즉, 이 '지구의 씨앗'이란 곧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줄로만 알았던, 자신들이 연구하고 탐사하던 지구의 최종심부에서 운 좋게 건져 올리게 된 글자 그대로 '미지의 물질'이었다. 항간에 알려진 사실과 다르게 한 번 태어난 행성은 DNA(라고 해야 할진 모르겠으나)같은 일종의 유전체계를 가져, 씨만 잘 뿌리면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재탄생할 수 있는 셈이다. 사실 완전히 정확한 측정이란 불가능해서 복숭아처럼 정말로 가운데 있었던 건지 수박처럼 여러 위치에 분포해 있었던 건지는 모를 일이다. 그리고 그렇게 건져 올린 조각의 아주 미세한 일부를 분석하고 연구해 가상의 우주공간을 적용한 실험

을 한 결과 현미경으로 봤을 때 점차 행성의 모습을 자체적으로 갖췄다는 것이다. 정말 행성이 탄생하듯. 그 다음은 그저 완성된 '지구 2세'에 정착해서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운은 현재 태양계의 행성 간 궤도와 안정성, 고주선이 날아갈 수 있는 범위를 최대한 고려해서 '씨앗 견인 고주선'이 정확한 위치로 발사되게끔 계산해놓은 것이었다. 물론 그 거주자가 우연히 지화였던 것이고.

이들은 대체 이 일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얼마나 이해해야 하는지는 몰랐으나 한 일본인의 "그럼 지구의 지진은 그 돌조각을 뺀 부분으로 땅이 꺼져서 생겼던 것 아닙니까?"와 같은 다소 섬뜩하지만 이 상황에서 웃음으로 터질 수밖에 없는 지독한 농담으로 인해 우선 행동을 하고 보자는 쪽으로 긍정적 분위기가 형성됐다. 이어서 지화가 "비닐하우스는 어떻게 만들까요?"와 같은 농담으로 더욱 분위기를 즐겁게 만들려했다. 그러나 지화가 주의사항을 읽었을 때 분위기는 또 다시 불안해졌다.

씨앗이 달린 집을 초기 배양실로 씨앗만 한다. 씨앗의 성장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각 집을 만들어 놓았을 뿐 아니라 씨앗이 집보다 커질 때쯤 집 자체를 흡수하며 폭발적으로 자랄 것이다. 조작은 간단하다. 집 밖으로 빠져나온 후 배터리 넣는 부분 안쪽에 있는 붉은 버튼을 누르면 된다.

농담으로 던진 비닐하우스의 주인이 자신이라는 사실에 지화는 또 실성할 뻔했지만 정신을 붙잡았다. 열혈 화훼업자인 지화는 자신의 안위보다도 지구를 식물처럼 파종하고 발아시켜 성장해선 이윽고 성목하는 그 궁극의 원예과정이 흥분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전체적인 상황이 좋지만은 않았다. 설명서에 대해 신뢰와 불신의 진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기 시작했다. 각자의 이기심과 위선이 소리 없이 빗발치는 가운데 우지는 고심 끝에 자신의 집을 내놓는 조건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자고 했다. 지화만 괜찮다면 자신의 방에서 같이 지내자는 것이다. 지화는 우지의 고운 심성이 보여 고마운 마음으로 수락했고, 그렇게 우주에서의 동거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물론 여자를 어떻게 해보려는 수작이 아니냐는 계획반대파의 무의미한 공격도 있었지만 오히려 자기 집의 조작 리모컨을 지화에게 넘김으로 모든 의심을 불식시켰다. 그리곤 한 마디 뱉었다.

“여기까지 와서 뭐하자는 겁니까? 정신들 좀 차리세요!”

우주에서의 이사는 무척 힘들었다. 완벽한 도킹(고주선끼리 접근하여 결합하는 일)은 필수불가결이었다. 도킹이 가능한 상태의 고주선이었지만 조종사들이 일반인이었기에 사실상 목숨을 걸어야만 했다. 게임으로 단련된 시우가 조종을 맡아주었고 무사히 성공했다. 또한 본격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언어통일이 필요했다. 핵심 단어인 ‘지구 씨’의 표현이 관건이었다. 국어 1등급인 우지가 이 타이밍에

지구를 의인화하는 재치를 발휘해 ‘Mr. Earth’라는 이름을 제안했다. 언어센스를 좋아하는 외국인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비로소 [Mr. Earth - 지구 씨]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우주에서도 '나 혼자 산다'를 해야 하나 싶었는데 다행이네요.”

우지가 방 안의 어색한 공기를 내보내려 농담을 던졌다.

“대신 '우리 결혼 했어요'같은데요?”

지화의 순수하고 직접적인 농담받기에 우지는 어쩔 줄 몰라 했다. 공시공부로 인해 연애감정이란 것이 피폐한 우지는 바보처럼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전에도 지구가 있었던 걸까요, 그럼?”

붉어진 얼굴을 숨기며 화제를 돌리는 우지였다.

“어머! 그럴 수도 있겠네요. 뭔가 무서워요...”

“우린 이렇게 다 쓰면 버리고, 다 쓰면 버려왔던 걸까요, 지구를. 일회용품처럼...”

지화와 우지는 황색가스에 뒤덮여 부글거리는 지구를 하염없이 바라봤다.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비상전력이 바닥을 드러내려는 순간에도 2세대 지구의 성장의지는 묘연했다. 비상전력으로 버티는 목숨에도 한계가 있었다. 사람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하나 둘 기계치였던 지화의 파종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인원이 생겼고, 그에 따라 지화를 지지해주기 위함인지 현실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선지 지화의 옹호파도 생겼다. 갈등은 거세졌고, 허나 상황의 특수성과 심각성으로 인해 지화는 수세에 몰렸다.

“꽃을 심어야 할 거예요..!”

유약한 지화가 결국 정신을 잃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발언을 내뱉곤 눈을 번쩍였다. ‘꽃 같은 소리’하지 말라며 사람들은 비아냥거렸다.

“왜, 왜 말이 안돼요, 그게?! 지구의 씨앗에 지구의 꽃을 심어보는 게 얼, 얼마나 일리가 있습니까?”

우선 상황을 수습하려 던진 말이었지만 당연히 말이 안 되는 말이였다. 계란으로도 바위를 못 치는데 꽃을 그 단단한 바위에 어떻게 뿌리내리게 한단 말인가. 사람들은 이제 아예 내놓고 비웃어댔고 정분이 났다느니 하는 루머까지 만들려했다.

“내 꽃을 심어보시오.”

처음 듣는 목소리였고, 사람들은 소리의 근원을 찾아봤다. 잠자코 있던 인도인 노파였다. 노파가 자신의 허름한 집 한쪽 방을 열어 화분을 꺼냈다.

화분에 덮여있던 검은 비닐을 제거하자 검게 빛나는 꽃 한 송이가 드러났다. 허나 꽃이라기엔 그 크기나 모양이 나무에 더 가까웠다. 각종 주제로 날을 바짝 세우고 싸우던 사람들은 그 이름 모를 꽃이 주는 웬지 모를 편안함에 누그러들었다.

“그 꽃은...”

그런 꽃은 처음 본 지화가 생경한 표정으로 조심스레 물었다.

“나도 정확한건 몰라요, 그저 집안의 가보처럼 키우고 있었다요. 허나 이 꽃이 이렇게 훌륭하게 쓰일 수만 있다면 우리 어머님도 편히 눈 감으실 수 있을 거라요.”

검은 꽃을 한참 바라보던 지화는 고개를 획 돌려 기대에 차 우지를 바라봤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지도 정확히 모르는 우지는 난감해서 눈만 굴렸다.

문제는 여전했다. 과연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 금기 같은 조건을 깨도 된단 말인가? 이성을 되찾은 사람들의 설전 끝에 초기 과학자들과 전문가들은 이론적으로만 접근했다는 결론과, 씨의 유무에서

지구를 식물로 보면 인간은 일종의 벌과 같은 역할 할 것이라는 결론이었다. 벌이 꽃가루를 옮기듯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 물론 예상에 불과했다. 정작 실행한 이 계획이 틀어졌을 때 인류의 존망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적어도 여기엔 그걸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가장 큰 비극은 사실 이들이 어쨌든 행동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였다. 야속하게도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그들에게 우주에서의 부동(不動)은 곧 죽음이었기 때문이다.

지화의 고주선에 도킹한 우지는 호흡마저 멈춘 채 걸음을 내딛었다. 시우에게 빌린 야간 투시경을 끼자 지화가 머뭇거리며 불렀다.

“방이 좀 더러워도 이해해줘요, 급하게 나와서...”

우지는 그런 모습이 귀여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뒤따라가던 지화는 발에 이상한 것이 발에 걸리자 소리쳤고 우지가 확인해보니 몇 벌의 우주복이었다. 씨앗 발아 시 비상탈출용으로 숨겨져 있었던 것이 드러난 것이다. 지화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 처음 입어보는 터라 장장 1시간여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며 환복한 둘. 지화, 가져온 검은 꽃을 조심스레 우지에게 건넨다. 꽃을 받아든 우지가 바위에 꽃으려다 멈추자 문제가 생긴 줄 알고 약간 놀란 지화는 바위와 우지를 번갈아봤다. 우지는 투시경을 벗더니 지화에게 씌워준다. 우주최초일지도 모르는 행성으로의 화훼이식이라는 놀라운 순간을 종사자이기도 한 지화에게 꼭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런 마음이 고마운 지화

는 수줍게 웃었다. 떨리는 손으로 바위의 틈에 조심스레 꽃을 꽂으려는 우지. 그때 꽃이 알아서 뿌리를 움직여 자리를 잡아갔다. 화훼업자인 지화에게도 놀라운 광경이었다. 바위에서 멀찍이 떨어진 둘은 한참을 눈도 깜빡이지 않고 바위를 쳐다봤다. 우주복 안에서 쉬는 숨이 안면유리에 김을 맺히게 했다.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물이라도 줘야 되는 걸까요?”

“애초에 바위에 꽃이...”

지화는 재수 없는 소리하지 말라는 듯 처음으로 쩌려봤다. 당황해서 변명을 하는 우지를 보자 또 웃음이 터지는 지화. 지구의 탄생은 안중에도 없는 듯 둘의 재미에 충실하다. 그 상황에 질투라도 난 듯 꽃이 떨리기 시작했다. 둘의 이목이 꽃에 집중되기 시작했다. 꽃은 그 머리 같은 잎을 하늘로 쳐들더니 이내 바싹 말라갔다. 둘은 그 상황을 지켜볼 뿐이었다. 이윽고 바위에서 진동이 일며 오븐 속 빵처럼 균열이 생기며 조금씩 부풀어 올랐다. 둘은 자세히 보려 얼굴을 가까이 들이댔고 곧 눈을 휘둥그레 떴다.

조용하던 오피스텔 고주선의 문이 열리자마자 둘은 뛰쳐나왔고, 바위가 폭발하며 고주선을 터뜨렸다. 걱정했던 조롱했던 지켜보던 모

든 이들이 일제히 놀라며 그 광경에 소리 질렀다. 기다리고 있던 시우는 레버를 조종해 줄을 감아 그 둘을 환송했다. 줄로 빠르게 딸려가는 둘은 무서워 서로를 꼭 껴안았다. 저들도 놀랐지만 이제는 인정할 때가 됐다. 우주가 싹틔워준 둘의 사랑을. 둘은 눈을 꼭 감은 채 우주복의 안면유리를 맞댔다.

Chapter 2

의도치 않은 업적으로 일종의 수장으로 추대된 우지는 그들의 쉬운 태도변화가 오히려 약간 역겨웠지만 내색하진 않았다. 우연찮게 꿈을 이뤘기 때문이다. 큰 사건의 발발로 궤도에 흩어져있던 다른 지역 고주선들이 모두 우지 쪽으로 모여들었다. 공책 속에 그린 꿈의 로봇처럼 사람들의 고주선들을 모두 도킹해 인간형 우주로봇을 완성했다. 물론 심심해서 만든 게 아니라, 우주에 떠다니는 우주왕복선, 우주 쓰레기들, 생각보다 많은 수의 인공위성(아마 비밀리에 발사된 것이 많으리라)들이 개별로 떠도는 고주선들에 충돌해 직간접적으로 사상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지구가 곧 태어난다는 기대에 힘입어 안전하게 합체하기로 한 것이다. 각 팔과 다리엔 사람들의 고주선이, 가슴부엔 식당을, 복부엔 화장실을 도킹했다. 그리고 두(頭)부엔 노파와 우지의 고주선이 도킹됐다. 그렇게 안정기에 접어들 것 같던 상황은 한 아이의 울음소리에 의해 깨졌다. 엄마가 보고 싶다는 그 아이의

말은 지구에 두고 온 가족들을 또 생각나게 했다. 우지가 해낸 일종의 기적을 본 사람들은 아예 가족들도 데려오자고 했다. 그런데 우지는 마냥 달갑잖아 보였다. 수장이란 높이의 무게가 우지를 누르는 것이다. 여러 질문과 고민이 무게를 더했다. 구출작전이 가능할까? 애초에 귀환을 했는데 모든 사람이 죽어있다면? 구체적이면서도 추상적인 고민을 갑자기 떠맡게 된 우지에게 노파가 다가왔다.

“해주실 위로는 감사하지만 지금은 실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해요...”

힘든 상황에 본의 아니게 통명스레 말한 우지에게 다가온 노파는 짐작했다는 듯 웃었다.

“궤도를 바꿔야 하오. 기존 지구의 위치로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다가올 달과 태양계 행성들에 부딪히고 말거요.”

갑작스레 전문적인 조언을 하는 노파를 놀래서 쳐다보자 노파는 주머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다. 프로젝트의 계약서였다.

“내가 그 프로젝트의 마지막 생존자라오.”

직접 듣고도 믿기지 않는 노파의 설명은 이랬다. 노파에겐 라일리라는 할머니가 있었다. 유능한 인도과학자 라일리는 인도여성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성공에 있어서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단다. 그러나 비밀리에 진행되어야 할 프로젝트였기에 평소 눈여겨보던 과학자가

라일리를 영입한 것. 그러나 초기 과학자들의 전근대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작업방식은 불만이었고, 생명윤리적 접근이 전혀 없었던 터에 끝내 진력이 난 라일리는 포기를 선언했지만 곱게 놔줄 그들이 아니었다. 고주선의 시범생활자로 선정됐다는 명목으로 라일리를 허름한 집에 살게 했고, 잇속도 잘 챙기지 못하고 심약한 라일리는 그렇게 대대로 그 집에 살았지만 프로젝트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기에, 훗날 이럴 때를 대비해 자녀들에게 과학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가망 있는 자녀에겐 프로젝트의 비밀과 계약서를 전해줬던 것이다. 그 손녀가 바로 이 노파, 레일리 할머니다. 감개무량한 우지에게 레일리는 조곤조곤 상황을 설명했다. 우선, 말했듯 2세대 지구의 위치를 1세대 지구 위치로 바꿔야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우주 쓰레기들과 곧 부스러질 1세대 지구의 부스러기를 잘 치워야한다는 것. 그러자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어차피 데려오는 편이 좋으며 우지의 걱정을 헤아린 말을 했다. 우지는 레일리가 자신의 짐을 덜어주는 게 너무 고맙웠다. 먹을 걸 좀 가지고 우지의 방으로 들어오려던 지화는 레일리에게 안긴 우지를 보고 묵묵히 기다려주었다.

우지는 곧 [지구이주 작전]을 진행했고 그들 팀을 한국 속담이기도 한 작지만 매우 우지의 이름을 따 [Micro Uzi(마이크로 우지)]라고 명명했다. 개요는 이랬다. 아쉽지만 휴머노이드를 해체해 막대기형으로 길게 도킹한 뒤 양쪽 끝을 각각 1,2세대 지구에 착륙시켜 전체적으로 아령 같은 형태가 되어 1세대 사람들이 2세대로 빨리 넘어오는 것

이었다. 그 후 1세대 지구가 소멸하면 그 막대기형 고주선을 추진시켜 2세대에 자전력도 만들어 줘야했다. 그 과정에서 생성될 우주쓰레기까지 처리해야 될,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작전이었다.

“이 방법밖엔 없나요...”

“이 방법이라도 있으니 다행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거네요.”

“그런 게 살아간다는 재미 아닐까요?”

우지의 냉담한 한마디를 레일리는 연륜 있는 농담으로 받아쳤다. 우지는 실소를 하곤 다시 어두워진 안색으로 진심을 말한다.

“쉬운 게 없네요. 공시공부도, 지구를 구하는 것도...”

“심지어 노는 것도 힘들다오.”

우지는 그제야 참기 힘들다는 듯 웃어보였다. 작전은 지체 없이 시작됐다. 늦출 시간도, 전력도, 여유도 없었다. 곧 휴머노이드 고주선은 마지막 임무로 기존의 우주 쓰레기를 모아 복부에 화장실로 담아 넣는, 인간이 만든 쓰레기를 로봇이 마음으로 품어주는 것 같은 진풍경을 선사했다. 장관은 이제 시작이었다. 팔과 다리는 도킹해제 후 우지가 있는 머리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길게 재도킹했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이미 바닥났어야 했지만 태양열 집열판이 설치된 집들이 태양열을 모아둔 덕에 연명했다. 제각각의 모양이지만 하나로 이어진 덕에 이제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우주복을 입지 않고도 달려갈 수 있었다. 가까이 있는 고주선이 2세대 지구에 착륙, 1세대 지구 쪽으로 당겨왔다. -군이 당기지 않고 밀면 안 되냐는 의견에 아직 2세대 지구가 작아서 밀면 오히려 궤도가 이탈될 수도 있다는 레일리였다- 한번 움직이면 그 방향대로 나아가는 우주의 특성 덕에 연료를 잘 아껴 1세대 지구로까지 왔으나 문제는 삭아서 바스러져 가는 황색연기로 뒤덮인 돌덩이로의 안착가능여부였다. 물론 여기까지 와서 하는 수밖에 없었다. 두려움이 문제일 뿐. 조종을 맡은 시우는 마지막 남은 레드블과 몬스터음료를 모조리 섞어 마시곤 운전엔 초 집중을 했다. 그러자니 착륙은 생각보다 쉬웠다. 2세대 지구 착륙용으로 이미 중력대기권 진입장치가 되어있었다. 좌표를 찍고 들어가면 됐다. 문제는 잇고 있던 지구의 황폐해진 상황이었다. 아무리 준 프로젝트이며 시우라 한들 시야확보가 불리하니 더욱 조심스러웠다. 다행히 인류 전체가 염원한 무사도착이어서인지 안착에 성공했다. 사고 이후 대면한 지구의 첫 모습은 글자 그대로 황량했다. 자세히 보니 우지의 고향인 부산, 게다가 자주 가던 순댓국집이었다. 이런 재난 속에서도 주인할머니는 깨끗하게 국밥집을 운영 중이었고, 길게 늘어선 줄엔 해진 명품양복을 입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우지는 대표로 생존자들과 얘기를 시도했다. 놀란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상황을 이해시키고

행동하게끔 만들어야 했다. 하지만 막상 사람들의 반응은 기대완 달랐다. ‘왜 이제야 왔냐.’부터 ‘니들만 살려고 도망치면 다냐!’는 등의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마이크로 우지는 당황했고, 화도 났다. 기껏 살리려고 왔더니 돌아오는 반응이 적반하장 수준이니 말이다. 하지만 마이크로 우지에 속해있는 자신의 가족들을 확인하고 이내 그들도 마음이 누그러들었고 그러자 말이 통해져 상황을 정확히 이해시킬 수 있었다. 이제 움직이기만 하면 됐다. 아직 방송통신장비가 멀쩡했다면 이 기막힌 작전을 누구든 생중계하고 싶었으리라. 물론 이 상황에서 모든 이들이 협조하진 않았다. 마이크로 우지에 가족이 없는 이들은 대부분 양복을 입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그들은 마이크로 우지가 이끄는 이 작전에 탁상공론식 문제를 계속 제기했고, 지휘권마저 뺏아오려 했다. 가만히 참고 있던 우지는 단호히 말한다.

“지휘권 같은 건 아무래도 좋습니다. 문제는 정말 당신들이 프로젝트를 해내냐는 것이죠.”

양복쟁이들은 자신들의 기존 사회지위를 과시하며 무시하는 거냐며, 학력을 밝히려는 식의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았다. 그 중엔 대학교수, 공무원 시험 감독관등도 있었다. 우지는 자신의 생계를 위태롭게 하던 사람들의 등장에 잔뜩 위축되어 말문이 막혔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양복쟁이들은 마구 비난했다.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무엇하나 이루지 못했다는 상처가 있는 우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온 몸

을 떨어냈다. 그 떨리는 손을 잡아준 건 지화였다. 지화는 우지를 보고 웃더니 마이크에 대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어른답게 행동하라고 소리치더니 가장 시야가 확보된 하늘에 프로젝트 빔을 쏘 화면을 띄웠다. 화면엔 이 작전을 지휘하는 양복쟁이들이 나왔다. 많은 사람들이 위험한 밖에서 기다리는데 양복쟁이들은 그들끼리 지식자랑에 가까운 회의만 거듭하고 있었다. 그새 고주선에 남은 전력은 바닥나 버렸고, 인류는 그렇게 오도 가도 못하고 끝나버렸다. 그 프로젝트를 본 많은 생존자들은 누가 지휘권을 잡든 그저 빨리 움직이고 싶었다. 양복쟁이들은 어리벙벙해하며 따랐다. 지화는 힘내라며 우지의 등을 두드렸고 레일리가 들어왔다. 그 빔은 레일리가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만든 VR시뮬레이션이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 생필품과 전력이 동나고, 살고자 하는 의지가 다 꺼지기 전에 하나로 이어진 고시원들을 지나 다음 지구로 달려가야 한다.

고시원들의 향연은 지평선 너머로 끝없이 이어져 소실점을 이루었다. 그것은 마치 긴 빨대 같았고 그 끝에 어렴풋이 드리운 거대한 2세대 지구의 실루엣은 그것을 물고 있는 사람의 얼굴 같았다. 과학 관련자들이 보기엔 거의 최후의 과학기술로 보여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별국 이것이 우주 승양기인가...”

한편 2세대 지구는 미처 못 다 치운 우주쓰레기들과 암흑물질 등을

먹고 잘 컸지만 오히려 속도가 너무 빨라 벌써 1세대지구를 침범하려 했다. 관건은 사람들이 다 들어갈 만큼 크기면서도 못 다 이동한 사람들을 침범하진 않을 정도의 크기여야 한다는 것. 더군다나 이 혼란 속 못 다 찾은 가족이나 놓치고 온 소중한 것들이 안 그래도 힘든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해 작전을 어렵게 했다. 그때 시우가 기다렸다는 듯 자신의 컬렉션 오토바이들을 꺼내보였다. 시우는 그 작은 방안에 오토바이까지 모았다. 게다가 우지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는 마이크로 우지의 기막힌 통솔 하에 벌써 2세대 지구까지 달려온 이들도 있었다. 그들은 문득 뒤를 돌아보며 ‘이게 정녕 우리가 열심히 생활했던 지구에서의 마지막 모습인가’하며 씩씩해한다. 슬프게도 공황 속에 미처 살아남은 유아들과 노인들은 많지 않았다. 그나마 수적으로 많은 유아를 모든 이들이 안고 업고 등 모든 방법으로 실어 날랐다. 기다리던 노인들은 사실 자신들이 짐이 될까 생존포기를 자처했다. 마지막 젊은이들이 손을 뺐었지만 그들은 그저 손을 흔들며 배웅했다. 허나 전혀 슬프지 않은 얼굴이었다. 노인들 스스로가 다 뺏다고 거짓 말하자 문이 닫혔고 1세대 지구는 그 큰 덩치가 거품이었던 양 녹아 내려 파편으로 돌아갔다. 그 파편을 양분삼아 2세대 지구는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생존의 기쁨, 희생의 슬픔을 나눌 시간도 없이 야속한 할 일이 남았다. 레일리 말대로 2세대 지구를 기존 공식에 편입하는 일. 인류는 생존을 걸고 마지막 남은 에너지를 지구회전에 사용해야만 한다. 잔여전력 면에서도, 고속회전 중 생존여부에서도,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 이 세대는 다음 지구를 완성시키기 위해 산 것과 다름없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아무것도 안하는 것도 고려됐지만 그래션 미래를 위해 현재와 싸우는 많은 이들의 삶이 허망해질 터다. 모두 각자의 고주선의 전원을 마지막으로 켜다. 그리고 공전 방향으로 지구를 당겼다. 곧이어 동시에 리모컨 버튼을 눌러 자전방향으로 급 발진한다. 긴 팔처럼 연결된 고주선들이 합심해서 지구를 던진다. 마치 은퇴 직전 선수의 최후의 투포환 같은 그 모습은 차라리 처연한 오상고절(傲霜孤節) 이었다. 2세대 지구는 겨울잠에서 깬 곰처럼 기운이 넘쳐 빠르게 돌며 궤도를 타기 시작했다. 인류는 만들어준 은인을 거부하는 듯한 2세대 지구의 원심력을 버텨내며 걸어 들어간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몰라요, 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잖아요?”

지화의 밝은 기운에도 이번엔 우지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대체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할까요. 무엇을 위해...”

“그건 저도 잘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지금 저 애기가 엄마 품에서 편히 잘 수 있는 거겠지요.”

레일리가 불안해하는 우지에게 다가와 보듬듯 말했다.

“이제 저는 무엇을 해야 하죠...”

우지는 텅 빈 마음한구석을 그대로 내어 말했다. 레일리도 선뜻 답을 하지 못한다. 이 사실을 알 리 없는 2세대 지구는 눈치 없이 건강하게 자란다. 우지는 그 막연하게 순수한 모습에 얼굴을 감싸 쥐고 주저앉아버린다.

여기까지 달려온 우지지만 사실 지나간 시험 준비에 지칠 만큼 지친 우지의 마음엔 더 이상 여유가 없었다. 의연해보였던 그 속은 가을 바람결에 나부끼는 낙엽 두 잎처럼 위태로웠다. 매 순간 그만두고 싶었지만 또 차마 그럴 수는 없었다. 기다리는 부모님과 자신이 약속한 것들이 있었기에. 문득 누군가 공무원 준비와 인류 구원이란 선지 두 개만 쥐놓고 선심 쓰듯 선택하라고 한 것 같았다. 갑자기 너무 억울해져 모든 걸 그만두고 싶었다. 무슨 소용이겠냐 싶었다. 그때 누군가 등을 찰싹 때렸다. 지쳐 잠에 들어버렸던 우지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살짝 들어본다. 지화다. 지화는 말없이 ‘계속 이럴 거야?’하는 얼굴로 우지를 일으키곤 앞으로 데려간다. 어리둥절한 우지 앞에 고마움에 환호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 지화가 우지의 고개를 들어서 보여준 앞엔 희미한 푸른빛이 샘솟고 있었다. 우지의 입술은 파르르 떨리다가 또 주저앉는다. 그리고 이젠 안도의 통곡을 마음껏 토해낸다. 검은 꽃잎이 우주에서 떠돌다가 바스락하며 사라진다.

수상소감

해보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묻으니 해야만 하는 말이 되더군요. 그러나 다른 이들은 들을 필요 없어 했습니다. 그럴 때는 저조차도 포기할 뻔했습니다. 타인은 비웃음으로, 친구들은 의심으로, 부모님은 걱정으로 일관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이렇게까지 했기'에 어느새 멈출 수 없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저를 잡은 이 역시 저였습니다. 결국 내가 아니면 나를 믿어줄 사람은 없더군요. 다행히 이 말을 '듣길' 원했던 누군가 덕에, 이 기회를 통해 첫 마디를 온전히 뱉었습니다. 뱉고 나니 그제야 나를 걱정하고 의심하고 비웃은 건 부모님도 친구도 타인도 아니라 나 자신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한 문장도 완성하진 못했지만 언젠가는 그럭저럭 괜찮은 한 문단이라도 완성해보고 싶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그 한 문단이, 필요한 모든 이에게 들리게 되는 날, 제 작은 바람이 이뤄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외침에게 박수까지 쳐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헛살가득하지만 실은 우주보다 더 캄캄한 지구에서 오늘도 고군분투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작품이 자그마한 터보 라이터라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상 포인트

전체적인 감상 포인트를 먼저 짚자면 대화가 거의 없고 서술자의 상황 설명에 의해서 전개됩니다. 독자들이 소설 속 인물들과 조금은 거리를 두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소 거칠고 복잡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침착하게 짚으면서 읽을 수 있도록, 이를 통해 이야기에 휘둘리지 않고 이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천천히 곱씹어 볼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서술자가 발칙한 농담을 하는 등의 기법도 그런 연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여 곱씹어 볼만한 거리를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목이기도 한 'Mr. 지구'입니다. 24p에서 우지가 '1등급의 국어 감각'을 발휘해서 지구의 씨앗, 즉 지구 씨를 '~씨'라는 의인화로 활용해서 'Mr. Earth'로 외국인들에게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출발했기도 하고 주제와도 딱 맞아서 저도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혹자는 이 말장난이 너무 귀엽다고 해줬던 기억도 나네요. 24p와 35p에서 우주에서도 결국 현실적인 정치 싸움박질을 하는 인간 군상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저들 때문에 망가져 버린, 피해자인 지구도 가만히 있는데 가해자인 자기들이 더 노발대발하는 이 대목에서만큼은 마음껏 그들을 비웃어주시어 머쓱함을 느끼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나아가 잘 먹고 잘 살려 했던 부자들이 오히려 지구에 버려진 상황에서 아이러니를 음미해보시길 권합니다.

36p에 우지가 고주선들을 한데 엮어 만든 '휴머노이드 고주선'은 어린 시절 미술학도였던 우지가 그리길 바랐던 모델로서 우주에서야 이룬 꿈을 뜻합니다. 때 묻은 성인이 되어서야 어린 시절 못 다 이룬 꿈을 그것도 우주에서 이룬다는 게 로맨틱하게 다가왔고, 이 장면이라면 현실 앞에 꿈을 포기해야만 하는 청소년들에게 작은 응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38p에 '오상고절' 장면은 지구가 살아있다는 과감한 작품을 쓴 이상 나름의 책임을 지려 만든 장면으로 기억합니다. 표면적으로 처절한 운동성이 잘 나타나면 좋겠다는 생각이었고, 지구를 궤도로 올리려는 그 모습을 그려보고 가만히 보니 투포환이라는 스포츠가 연상됐습니다. 작업 자체가 막바지였어서 그랬는지, 다시 보니 오상고절은 다소 과잉 표현이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지막 장면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비하인드를 공개하자면 애초 기획은 부정적인 결말이었습디만, 다 쓰고 보니 이대로 끝내는 건 너무 무책임한 결말 같더군요. 그래서 고생한 주인공들에는 보상의 차원에서, 작품 전체로는 적절히 봉합하는 차원에서 결말을 수정했습니다. 검은 꽃 또한 그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보는 재미가 있겠습니다.

이렇듯 한 번쯤 생각해볼 만한 지점들을 즐겨주시다가 다만 한 줌의 따스함을 느끼며 책을 덮으면 족하겠습니다.



성인부문 - 최우수상 (단편영화)

남겨진 자들

정지현 · 이정하 (국민대학교 미술학부 회화전공)

작품소개

<남겨진 자들>은 <변신>에 SF적 상황과 한국 사회의 모습을 섞은 이야기다. 환경오염으로 인해 사람들이 지구를 떠나는 대탈출 시대, 주인공 은영은 오염인 판정을 받는다. 반대로 은주는 병에 걸리지 않고 취업을 해서 화성으로 이주에 성공한다. 은영의 몸은 갈수록 외계인같이 변해가는데, 은영을 다시 만난 은주는 은영을 어떻게 대할까?

심사평

제한된 시간과 제작 예산 안에서 상당히 훌륭하게 결과물을 만들었다. 주제와 설정 등에서 드러나는 문제의식이 돋보이며 향후 영상작업을 계속 한다면 더 좋은 성과를 내리라 기대된다.









본 작품은 단편영화로 공모전 홈페이지 (<http://ssfc.pusan.ac.kr>) 또는 YouTube (<https://youtu.be/8QIGkhrPbbQ>)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수상소감

우선 저희 작품을 좋게 봐주시고 최우수상이라는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상했을 때도 행복했지만, 멋진 분들과 그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어 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영화를 만들면서 새로운 일에도 많이 도전하고 부딪혀야 했습니다. 좋아하는 일이기에 그런 경험 자체가 재밌게 느껴졌고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작부터 발표, 질문에 답하는 시간까지 이렇게 모든 과정에 애정을 느낀 적이 처음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이런 소중한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정지현

제가 두 번째로 찍어본 단편영화입니다. 아직 영화를 많이 찍어본 것은 아니지만 영화를 만들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큰 배움이 많았습니다. 한동안 교수님이 내준 과제나 의뢰받은 영상을 찍는 작업을 계속 했더니 '내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남겨진 자들'을 통해 제가 하고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과제와 의뢰를 통해 쌓아놓은 기술을 활용해서 지금까지 제가 배우고 익힌 것을 모두 쏟아부었다고 자신 할 수 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앞으로 실력을 키워 채워나가야겠지요.

영화에서 은영은 은주에게 '그냥 너의 기억속의 나로 기억해달라'

고 말합니다. 은영과 은주는 더 이상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사이가 되었으니까요. 공모전이 끝나고 우리의 고민을 여기서 멈추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기억 속에 남겨지지 않고, 지금 여기서 손 잡을 수 있는 사이가 되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세상을 위해 계속 고민하고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영화를 만든 정지현 미술감독과 저희가 의도한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해준 박미리, 이 서 배우님께 감사합니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주최측에게도 감사드립니다.

- 이정하

*

영화가 만들어지기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도움이 있었음에도 크레딧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소개하고 싶습니다.

박미리 이서 최요셉 송은정 고효정 양해원 하야시 리사
윤희영 최현경 최현주 고정균 최소진 최민석
이유진 이효범 김소연 허채정 정해경

영화뿐 아니라 영화 밖의 우리를 항상 도와주는 가족들 감사합니다.

성인부문 - 우수상 (단편소설)

은혜

서진교 (부산대학교 철학과)

작품소개

우주개발시대에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가치가 무엇일까? 배경은 2060년 부근으로 당시 지구의 특징은 온난화와 신체 개조,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이들 사이의 갈등이 우주개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작품으로 풀어보았다.

심사평

기본기와 캐릭터 설정, 구성 등 전반적인 면모들이 탄탄하였다. 다만, 마무리가 매끄럽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앞으로 좋은 SF 작가가 될 가능성이 엿보이니 계속 정진하기를 기대한다.

해도 뜨지 않은 새벽이었지만 녹진한 공기는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모터가 곧 터질 것 같은 소리를 내는 공업용 선풍기 하나에 의지한 채 사람들은 간간히 봉고가 들어올 때 말곤 절전모드에 들어간 것 마냥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마주치지 못하는 시선들 속에서 시간은 오늘도 아주 무겁게 흘러갔다. 해가 뜨기 시작할 무렵이 되자 인력사무소에 사람들은 거의 다 빠져나갔지만 은혜는 오늘도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켰다. 꺾충하게 큰 키와 검게 침착된 팔뚝과 목에서 그녀가 경력 있는 육체노동자라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었지만, 강화시술을 받은 남성들 사이에서 내추럴인 그녀의 검게 탄 왼팔은 그녀를 더욱 왜소해보이게 만들 뿐이었다. 사무소에 그녀와 소장밖에 남지 않게 되었을 때 그녀는 불평을 시작했다. 일머리도 없는 애새끼들 데려다가 무슨 일이 되겠느냐고 역정 내는 은혜의 모습을 소장은 익숙하다는 듯 무시했다. 오늘은 공쳤다고 생각하고 은혜가 일어나려고 하자 소장이 그녀를 멈춰 세웠다. 김씨, 신호수 땀뺩이라도 할래요? 잠깐 멈췄지만 그녀는 자신의 기계팔을 찢그럭거리다 뻘었다고 말하며 사무실을 나섰다. 이 기계팔이면 성인 남성 한 명 정도는 거뜬히 들어 올릴 수 있다고 자랑하던 그녀였기 때문에 신호수라는 말에 자존심이 상했을 것이 뻔했다.

비록 라면이더라도 아침밥도 챙겨먹고 나왔는데 그대로 집에 갈 순 없었다. 아직 셔터도 열지 않은 당구장 앞을 한참 서성거리자 한 사내가 나와 그녀를 들여보내주었다. 불 꺼진 홀을 지나 사무실을 건

너 철문을 열자 줄지어진 슬롯머신과 화투판에 모여 앉은 아줌마들이 보였다. 팔 한 쪽이 없는 그녀가 저 판에 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녀는 머신 앞에 앉아 레버를 당기기 시작했다.

점심시간도 되기 전에 그녀는 백만 원도 넘는 돈을 잃었다. 오늘따라 잘 안 붙네, 로 시작해서 자리를 몇 번 옮겼고, 방금 전까지 그녀가 앉아있던 자리에서 돈을 따가는 사람을 봤고, 웬지 다음번엔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좁아진 시야가 돌아오자 어느새 백만 원을 넘긴 걸 알아챘다. 그녀는 갑자기 머신을 발로 차며 일어났다. 날카로운 욱설소리에 모두가 그녀를 쳐다봤다. 말단처럼 보이는 탈색머리를 한 조선족 사내가 그녀를 말리러 왔지만 그녀는 이거 조작한 거 다 안다며 사장 불러오라고 고래고래 소리 질렀다. 잠시 후 등장한 정장을 입은 사내는 실망을 드러 죄송하다고 말했다. 굽히는 태도에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내가 지금까지 믿고 여기만 왔는데 이렇기냐며, 내가 호구로 보이냐며 그의 면전에 대고 쏘아붙였다. 죄송하지만, 그가 말했다. 저희는 확률 조작은 하지 않습니다.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가져오게 시켜 슬롯머신에 연결시켰다. 태블릿 속 검파일러에 복잡한 외계어가 쏟아져 나왔다. 태블릿을 쥐어주기에 들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 화면을 한 글자도 읽을 수 없었다. 끓어오르는 화에 손이 파르르 떨릴 정도였지만 문제점을 발견하면 바로 말하라는 말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실례하지만 많이 흥분하신 것 같습니다. 사장은 그녀에게 오만 원 한 장을 건넸다. 나가서 시원한 거라도

한 잔 하시길 바랍니다. 그녀는 엉거주춤하게 지폐를 받아들고서 떠밀리듯 건물을 빠져나왔다. 그녀가 나가자 그 조선족 사내가 사장에게 저 여자가 누구기에 이렇게 잘 대해주느냐고 물었다. 사장은 원래 못 배우고 잃을 게 없는 사람은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니 잘 구슬려 보내야 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떠밀려나온 그녀는 어두운 건물 앞에서 손으로 햇볕을 가렸다. 아스팔트가 끊어 신발 밑창에 묻어나올 것 같은 한낮이었다.

물론 은혜가 잃을 게 없는 건 사실이었지만 그래도 못 배운 건 아니었다. 한 땀 그녀도 최소한 보통이상은 간다고 할 수 있었다. 어릴 적 유치원에서 달달 외우게 시킨 영어 노래를 듣고 그녀의 부모가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노후자금을 꺼서 학원을 보낸 덕분에 학교를 다니는 내내 그녀의 성적은 1등급과 2등급 언저리를 오르내렸다. 물론 그것이 순전히 학원 때문은 아니었다. 다른 아이들이 외우는 영어 노래를 외우지 못하는 것이 분해 눈물을 흘리며 빠득빠득 외웠고, 노트 필기를 빌려달라는 친구에게 중요한 부분을 빼고 빌려주는 등 그녀 나름의 각고의 노력을 부정할 수는 없었다. 여하튼 20살이 됐고, 서울에 그저 그런 학교에 그저 그런 학과를 갔으며 모두가 그렇듯 졸업할 때쯤 경영학과를 복수전공했고 졸업 후엔 반 년쯤 취업준비를 빙자하여 놀다가 동종업계에선 유망하다지만 보통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IT회사에서 인사·회계·영업·마케팅을 모두 담당하는 직원이 되었다. 회사를 일 년 정도 다니면서 그녀는 여기서 더 이상 발전이 없

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때문에 그녀는 일과 중이면 3초에 한 번씩 생각했다. 때려치울까? 하지만 굳이 그녀가 때려치울 필요는 없었다. 여섯 사람이 밤을 새우며 잔업해야 했던 일을 혼자서 해결하는 인공지능 관리자가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집집마다 넘쳐나는 취준생들 중 굳이 그녀가 뽑힌 것도 운이 좋았다기보다는 인공지능으로부터의 엑소더스를 눈치 채지 못하고 뒤쳐진 것뿐이었다. 과학기술이 인간을 노동으로부터 해방시켜준다고는 들었지만 그것이 해방이 아니라 추방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렇게 그녀는 제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하루를 보냈다. 여름이면 섭씨 41도가 넘는 폭염이 이어지는 날씨였지만 에어컨도 켜지 못했다. 어떤 음식이건 반나절을 채 가지 못하고 쉬어버렸다. 밥을 해먹을 힘도 남아있지 않던 그녀가 부엌을 뒤지다가 발견한 건 바나나였다. 마지막 힘을 짜내며 바나나 껍질을 벗기던 그녀는 근 며칠 중 가장 큰 소리를 내며 말했다. 와, 대박.

탄수화물 함량 25%의 비타민A와 C가 풍부하며 100g당 92kcal를 갖는 이 아열대성 식물을 보며 그녀는 오전마다 속독해야했던 각종 경제연구소들의 보고서들을 떠올렸다. 그건 지난 수십 년간 이어진 온난화가 중남미의 여름을 열대작물마저 익어버리는 염화지옥으로 만들었고, 어찌 열매가 열린다고 해도 그 지옥 속에서 일할 인부가 없어 5년 내에 바나나 사업은 완전히 개편될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그들이 예측한 위도 30도 부근의 고온다습한 지역은 미 동부, 중국 대

륙, 그리고 한국이 있었다. 그녀가 둘러본 몇 해쯤 쉬고 있던 땅들의 주인은 텃밭 한 번 일귀본 적 없이 유산으로 상속받은 도시의 중년들이었다. 그들은 그녀의 가녀린 팔뚝을 보며 농사는 아무나 짓는 게 아니라고 가르치려들었다. 하지만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을 속이는 건 쥐꼬리만한 지식으로도 충분한 법이다. 그녀는 영업을 하며 얻은 비위와 마케팅을 하며 얻은 허풍으로 그들을 설득했다. 그들과 은혜의 차이는 아주 조그마한 것이었다. 그건 간절함의 유무였을 뿐이다. 당연하게도, 국가의 지원이 쏟아졌다. 청년 귀농, 심지어 여성이라는 점은 그녀가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완주군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자 든든한 무기가 되었다. 처음 1, 2년간 기반을 닦으며 여러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모두 시간이 해결해주는 문제들이었다. 맥주와 각테일, 그리고 파스타보다는 막걸리와 홍어삼합, 그리고 깡소주에 익숙해지자 그녀는 성공적 귀농 사례로 지역 신문의 인터뷰까지 실리곤 했다. 어느새 결혼도 했다. 이런저런 일들로 군청에 들릴 때마다 생글생글 웃는 얼굴과 꼼꼼한 성격이 마음에 들어 밥이나 먹자한 약속이 술이 되고 어느새 덜컥, 책임지라고 말하자 결혼까지 해버리는 요즘 시대에 없는 무농약 같은 남자였다. 그 아이는 세상 빛을 본 후 얼마 안 되어 마음속에 품었지만 그들에겐 충분히 다음을 기약할 여유가 있었다. 더 이상 내일을 걱정하지 않게 되었을 무렵 그녀는 서른 후반을 바라보고 있었다. 자연스럽게 그녀는 입버릇처럼 노력은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 따위의 그녀가 대학 시절 가장 싫어하는 말들을

뇌까리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운이 좋았다는 말은 믿지 않았다. 처음 농사를 시작할 무렵 부모의 마지막 노후자금과 그들의 신용이 담보로 잡히면서 시작한 일이긴 했지만 모든 위기는 그녀의 재능과 노력으로 극복되었다고 그녀는 믿었다.

전염병이 퍼졌다. 전염성이 매우 높고 사망률이 100%에 달하는 전염병이었다. 그녀는 회사에서 짚린 그해 여름처럼 천장을 보며 누웠다. 달라진 점은 에어컨은 틀 수 있다는 점 정도였다. 만약 사람이 걸리는 전염병이라면 이렇게 낙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문제는 바나나에 퍼지는 병이었다. 더 크고 더 맛있는 바나나를 먹기 위해 단순화된 유전자풀은 모두가 같은 약점을 공유하는 셈이었다. 흡과 그 속의 습기를 통해 옮겨 다니는 곰팡이들을 잡을 방법은 도저히 없었다. 그나마 아직 감염되지 않은 바나나들을 지키기 위해서 나머지를 모두 불태워버리면 3할 정도는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남편에게 빨리 허가를 받아오라고 시킨 후 기다리는 중이었다. 남편이 늦자 그녀는 급한 마음에 먼저 불을 질렀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남편은 다신 돌아오지 못했다. 그는 민원 처리가 늦어져 급한 마음에 밭을 가로지르는 샛길을 타고 달려오다가 불길 속에서 죽었다. 그녀는 그를 밭 어딘가에 묻었지만 다시 찾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그의 장례식이 끝나고 난 후, 한국에서 유일하게 지평선이 보이는 평야라고 자랑하던 그곳은 단 한 그루의 바나나 나무도 남아있지 않는 허허벌판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를 묻어주고서 집에 돌아온 그녀는 약 60시간

동안 눈을 뜨지 못했다. 처음엔 장례를 치른 후 긴장이 풀리며 찾아온 피로 때문이었고, 그 다음은 그를 묻어주다가 베인 원인 모를 상처 때문이었다. 24시간이 넘도록 움직이지 않는 그녀를 본 사물인터넷은 긴급 상황을 알렸고 그녀가 눈을 뜬 건 그로부터 36시간이 더 지난 병실에서였다. 정신이 들자 오른팔에 통증이 밀려왔다. 의사는 살아 남은 게 기적이라고 말했다. 오른팔은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살아남은 값에 비하면 싸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였다.

십 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다. 떠난 지 십 년도 더 지난 서울은 더 이상 변할 강산은 남아있지 않았지만 빌딩 숲들은 완전히 개편되어 있었다.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오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는 상업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완전히 무용하다는 것이 밝혀지고서 외려 자동차들은 땅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때문에 차도가 있던 자리에도 모두 빌딩들이 들어섰다. 뻑뻑하게 들어찬 직사각형의 빌딩들은 웬지 그녀의 서울 입성을 막는 성곽처럼 보였다. 저곳에 그녀의 자리가 있을 리가 만무했다. 그녀는 결혼한 뒤 끊었던 담배를 꺼내 물었다. 반을 태우기도 전에 경찰이 달려왔다. 이제 서울 모든 거리에서는 금연이었다. 완주에서 그녀를 든든하게 돕던 경찰이었지만 이곳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아니, 자판기 좀 찢다고 벌금 내라는 게 말이 돼? 현장에서 검거된 은혜는 경찰이 눈앞에 있음에도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말했다. 힘

줄이 툭툭 불거진 두꺼운 팔뚝을 가진 경찰은 그녀의 괴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말을 이어나갈 뿐이었다. 올해부터 개정된 감정노동자 보호법에 의해 휴머노이드 로봇, 길 안내 홀로그램, 자판기까지 폭력적 행위로부터 보호받습니다. 높낮이에 변화가 없는 그의 말투는 이상하리만큼 창백한 그의 피부만큼이나 차가웠다. 이 주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추가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염병…….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태블릿을 두드리던 경찰이 고개를 들자 그녀는 입을 틀어막았다. 지갑 사정이 그녀를 빠르게 학습시킨 것이었다. 대신 그녀는 그 경찰을 노려봤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의 목덜미를 노려봤다. 아니나 다를까, 그의 경찰복 칼라 밑에 언뜻언뜻 뻑뻑한 바코드가 비쳤다. 아틀라스사의 4세대 휴머노이드였다. 좇같은 것들. 기계들이 합심해서 인간을 억압하고 있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한국 아줌마가 아무리 강하다 한들, 저 덩치한테 스킨기만 해도 보통 사람은 최소한 기절할 게 뻔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오른 팔꿈치 아래로 기계가 돼버린 자신의 팔을 쳐다봤다. 녹슨 구리스가 새어나와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했지만 어쩐지 그 냄새가 자신을 안심시켰다.

고시원의 좁은 복도를 지나가자 허리가 굽은 사내가 코를 막으며 지나갔다. 병신 새끼가…….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목소리를 들었는지 사내가 뒤돌아봤지만 키가 큰 그녀는 그를 내려다보았다. 잠깐 서로를 노려보다가 사내가 먼저 돌아갔다. 그녀는 이겼다고 생각했겠지만 잃을 게 많은 사람이 물러나는 싸움을 이겨버렸으니 그녀의

판정패라고 보는 게 맞겠다. 방에 들어간 은혜는 자신의 매트리스를 들어냈다. 비닐에 펼쳐진 지폐를 모두 모아 세어보니 정확히 1118만원이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다. 그녀의 신체접촉을 감지하자 빈 카드는 명함으로 변했다. (주)아틀라스. 극동태평양지부. 직급과 이름이 적혀있을 자리가 비어있는 명함은 제 스스로 구린 점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듯 했다.

*

2009년, 나사에서 달에 물이 있는지를 실험하기 위해 카베우스 크레이터에 로켓을 충돌시킨 이후, 그 근방에서 달 탐사 로봇이 종종 실종되곤 했다. 그로부터 반세기도 넘게 지나기까지도 당시 충격으로 생긴 균열 속에 빠져 고장이 났을 것이라고만 생각했지 그 균열 속을 탐사해볼 생각은 누구도 하지 않았다. 우주 개발의 3세대 후속주자인 아틀라스 사는 기존 회사들이 시도하지 않던 참신한 방법론으로 늦은 시작을 극복하고자 했는데, 크레이터 탐사도 그 중 하나였다. 그리고 그들은 그 균열을 타고 들어가자 거대한 용암 동굴이 있다는 걸 밝혀냈고, 비교적 안정된 일교차, 비교적 많은 수소 분자, 비교적 차단되는 우주 방사선 등이 만약 달에 테라포밍을 시도한다면 이곳

이 최적의 장소라는 것 또한 알게 되었다. 그들은 이 사실을 사내 극비사항에 부쳐 우주 거주 사업을 준비했으나 모든 준비가 끝이 난 뒤 가장 큰 문제가 생겼다. 이 복귀 가능성이 불투명한 사업에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었다.

왜, 너네 로봇 잘 만들잖아. 은혜가 어두운 술집에서도 선글라스를 끼는 아주 수상한 여자에게 물었다. 맞습니다. 원래는 4.5세대 휴머노이드 AE 5기가 투입될 예정이었지만 이사진 회의에서 결국 인간이 가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는 일부 주장 때문에 인간이 한 명은 가야 한다고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라고? 아무리 돈 따서 기분 좋은 날에 술 좀 사줬답시고 뒤지러 가라는 말에 감사합니다, 할 것 같아? 은혜의 말이 끝나자 수상한 여자는 비서인지 경호원인지 모를 덩치의 남자가 건네주는 파일을 받아 읽기 시작했다. 김은혜, 2015년생, 한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졸업, 완주군에서 바나나 농사를 짓다 전염병으로 파산. 빛 독촉에 쫓겨 다니다 부는 사망 모는 연락 두절. 현재 인천 부평구의 고시원에 거주중. 계좌 압류 이후 금융서비스 이용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가내에 보관중인 것으로 추정. 추정금은 약 천오백만 원 안팎. 더 읽을까요? 이 경우 어떻게 알았느냐 따위의 질문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은혜는 알고 있었다. 뭘 원하는 건데? 술잔을 쥐고 어깨를 펴고 등을 기댔지만 이미 목소리는 움츠러들어 있었다. 이해가 빠르시네요. 이것만 생각하세요. 당신을 전설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달에서 농업의 어머니, 가이아가 될 겁니다.

딱 3년간 파일럿 기간이 끝나면, 첫 세대 이주민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하고 그 사람들이 타고 온 비행선을 타고 귀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전 세계 스타 탄생이죠. 좋아, 근데 실패하면? 잤는데 살 곳이 아니거나 로봇들이 미쳐버리거나 하면 어떡하냐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렇게 말씀드리죠. 현재 공식적으로 페르세포네호에 인간은 타지 않습니다. 당신의 이주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그때부터 그 우주선엔 인간이 한 명 타 있던 걸로 바뀔 겁니다. 은혜는 알겠다고, 생각할 시간을 며칠만이라도 주면 안 되겠냐고 물었다. 그 여자는 은혜에게 처음 술을 살 때처럼 예의바른 웃음을 지으며 명함을 건네주었다. 빠른 시일 내에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은혜는 능청스럽게 문을 막아선 인간인지 로봇인지 알 수 없는 것들을 보며 이 제안이 권유가 아니라는 걸 빠르게 깨달았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왜 나야? 오늘 슬롯머신에서 큰돈을 땀다고 하셨죠? 그건 실력이 좋아서인가요, 운이 좋아서인가요? 당연히 운이 좋았던 거지. 그럼 당신은 오늘 정말 운이 좋으신 거네요. 돈도 따고 저희도 만났으니까.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자 곧 검은 세단이 고시원 앞에 멈춰 섰다. 충청북도의 처음 듣는 동네에 있는 우주센터까지 가는 동안 조수석에 앉은 수상한 여자는 페르세포네호가 출발하기까지 남은 한 달 동안 그녀가 주려야 할 것은 3년간 함께하게 될 휴머노이드인 AF 1호부터 4호까지와 유대를 맺는 것이라고 했다. 아니 잠깐만, 기

계 새끼들하고 뭐? 친구나 먹으라고? 아, 실례했네요. 그 기계 새끼들도 당신과 친구는 하기 싫을 것 같은데. 씨발, 너 다시 말해봐. 그러자 그 여자는 조수석에 올린 은혜의 왼손을 꺾으며 말했다. 너도 입조심해. 우리도 너 같은 인간쓰레기를 사람으로 보진 않으니까. 손을 풀어 주자 겨우 자리에 앉은 은혜는 그 이후로 분노를 잘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짧은 시간에 남의 목덜미를 잘 살피고는 속으로 욕을 뇌까리며 분을 삭이는 방법 또한 배우게 되었다. 어찌면 가장 인간다운 반응을 배우며 목적지에 도착했다. 세계를 떠받들고 있는 아틀라스 동상이 그들을 반겼다.

강화 기술은 평등한 세상을 만듭니다. 아틀라스 GE 헬스케어. 줄기세포 배양을 통해 근골격계질환 비수술 치료법에서 두각을 보인 것으로 시작해 기왕 바꿀 거 더 좋은 걸로, 라는 모토를 걸고 뛰어난 강화 및 이식 사업이 당시 정부지원사업을 등에 업고 대박이 났다고 그녀가 회사를 다니던 시절 들었던 기억이 났다. 여자의 뒤를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그들의 사업을 연도별로 정리한 마네킹들이 서 있었다. 4족 로봇에서 첫 2족 보행 로봇인 1세대 AE와 더 이상 외적으로 인간과 구분이 불가능한 3세대 AE, 목소리와 걸음걸이와 같은 것이 구분 불가능한 4세대, 그리고 아틀라스의 서버와 연결되지 않더라도 스스로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 사고 확장이 가능해진 4.5세대까지 전시되어 있었다. 각 AE들과 강화기술을 받은 신체에 대한 마네킹들은 마치 고전주의 조각들처럼 완벽해보였다. 그 완벽함은 아틀

라스의 모든 직원들에게서도 찾을 수 있었다. 과학의 최첨단에 선 연구소의 연구원들이라기엔 큰 키에 뚜렷한 안와상용기, 경찰 로봇들에게서나 보던 흉기와 같은 삼두근을 가지고 있었다. 복도 끝에서 만나 담당자라며 악수를 건네는 남자의 손은 무시무시한 덩치에 비해 물 한 번 묻혀본 적 없을 정도로 고왔다. 뒤돌아 엘리베이터로 안내하는 그의 목은 깨끗했다.

한 달간 숙식하며 은혜는 속성으로 중력을 견디는 훈련을 받았고, AF들과 끝없는 정신 감정을 받았다. 제 이름은 김은혜입니다. AF들과 달에서 힘을 합쳐 농사를 지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6시간마다 같은 문장을 반복하며 목소리와 떨림에 담긴 진의를 알아채는 테스트에서 그녀는 점점 안정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건 이 로봇들도 달로 내몰리게 된 것이 두려워 틀린 대답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이들은 도박에서 승리한 것은 당신의 실력입니까, 행운입니까, 하고 묻는 질문에 실력이라고 대답하거나, 권유하다와 강제하다를 혼동하는 등 말이 안 되는 실수들을 했다. 그때마다 그들과 덩치가 똑같은 연구원들이 들어와 그들을 호되게 혼내거나 고쳐지시 되지 않는 경우 전원을 꺼버린 후 설정값을 바꾸곤 했다. 그들은 로봇일 뿐이고 전원을 켜면 다시 일어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눈이 풀리며 고개가 폭 쓰러지는 전원이 꺼지는 모습은 왜인지 섬뜩했다. 그 모습을 본 이후로 그녀는 연구원들이 당신은 뭐……, 하며 자신을 무시할 때도, 자기와 떨어져 앉아 식사를 하던 한 무리의 연

구원들이 자신을 병신년이라고 부르는 것을 들었을 때도 화를 내지 못했다. 그럴 때면 그녀는 AF들을 찾아가 여러분은 훈련이 잘 돼가고 있냐며 시답잖은 이야기를 건넸고, 자신이 어린 시절 로봇이란 뼈격거리며 움직이는 것이었다며 로봇 동작을 따라하며 농담을 던지곤 했다.

발사 시퀀스가 진행되었지만 우주선이 대기권을 통과하는 중력을 견디는 것 외에 우주선 속에서 그녀가 할 일은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했다. 그녀는 목 뒤로 바코드가 드러난 사내들이 알 수 없는 말들을 주고받는 걸 불안하지 않은 척 지켜보는 것이 유일한 할 일이었다. 지구 중력을 벗어나 몸이 똥똥 뜨기 시작했지만 종자와 식량, 장비들을 가득 실은 우주선에서 우주유영을 즐길 공간 같은 건 없었다. 벨트를 풀고 제 자리에서 잠깐 떠보는 것이 전부였다. 나머지 네 로봇들은 각자 임무수행에 바쁜 것처럼 보였다. 은혜는 자신의 깨끗해진 기계팔을 내려다봤다. 왼팔과 완전히 똑같은 기계팔을 만들어주겠다고 말했지만 왜인지 거절했던 그녀였다. 작게 난 유리창 밖으로 지구가 보였다. 다시 돌아가게 되면 엄마를 찾고 싶다고 생각했다. 오, 이런. 그녀가 작게 중얼거리더니 다시 벨트를 매고 체크리스트를 꺼냈다. 종자와 식량, 텐트 장비와 산소 제작기에 이상이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까지 마치고 난 뒤 마지막 체크리스트엔 균형센서를 점검하는 칸이 있었다.

균형센서 점검이 무엇인지 확인해주길 바람. 그녀의 우주센터와의 첫 교신이었다. 그건 달에 착륙 후 진행되어야 할 시퀀스임. 기존 계획은 AE들 간 상호작용이었지만 로봇 간 로봇 업데이트 금지 법안이 통과되어 본인이 해줘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은혜는 그걸 왜 이제야 말하느냐고 따져물으려했지만 이들에게 자신은 로봇보다 못한 존재라는 걸 준비하는 한 달 동안 몸으로 느껴왔기에 말을 아꼈다. 단지 그건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었다. 답이 잠시 지연되다가 도착했다. 매뉴얼을 참고하기 바람. 그녀는 그들의 반응이 예상되어서 웃었다. 매뉴얼은 별다른 설명 없이 명령어만 가득했다. 코딩 할 줄 모름. 그녀가 짧게 교신을 보내자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답이 왔다. 처음엔 그냥 물음표 하나만 찍혀서 온 후, 문장이 도착했다. 농담하지 말 것.

*

달의 바닷속은 어두워 균열의 생김새가 잘 식별되지 않았지만 AF들은 그 사이사이를 잘 피해 용암동굴 내부에 도착했다. 달 기지라고 하면 대기 없는 하늘의 차갑도록 깨끗한 하늘과 쏟아지는 별들, 그리고 푸른 구슬 같은 지구를 볼 수 있는 풍경을 기대하겠지만 용암 동굴 내부는 아주 거대한 짐승 내장 속에 그 짐승의 목구멍을 타고 아

주 얇은 빛 한 줄기가 내려오는 모습과 같았다. 페르세포네호 달 착륙 완료. 교신을 보내는 것을 마지막으로 착륙 시퀀스가 끝나고 버클을 다섯 명이 모두 풀었지만 일어난 건 한 사람뿐이었다. AF들은 모두 제자리에 고꾸라졌다. 궤속의 균형기관을 복제하는 것만큼은 불가능하여 지구 중력에 맞추어 중심을 잡게 하는 식으로 서있는 로봇이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물어가며 한 글자 한 글자 적어나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세 AF는 모두 일어났지만 한 AF는 그러지 못했다. 단순한 실수였다. 적으라는 글자를 잘못 적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미 바꾼 코드로 컴파일 에러가 뜨자 AF 1호는 그대로 멈추고는 꺼져버렸다. 일어나자마자 베이스캠프를 구축하기 시작한 2-4호는 쓰러진 1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순식간에 텐트를 세운 그들은 짐을 옮기기 시작했다. 은혜는 1호도 좀 데려가자고 말했다. 그들은 그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명령하신다면 하겠지만 그 이유를 설명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4.5세대 모델다운 반응이었다. 쓰악한 기분을 설명할 방법을 찾지 못하여 언젠가 쓸모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로 그들에게 설명했다. 바깥은 영하 200도라는 가늠도 되지 않는 곳이었다. 어차피 우주복도 입지 않고 짐을 옮기던 그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을까? 1호를 그녀의 방에 옮기는 그들을 보며 그건 아니길 바랐다. 마지막이 될 지도 모르는 기록을 남긴다. 이 기록을 보게 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걸 안다. 사람 외에 다른 생명체에게 남기는 기록이다.

달의 테라포밍은 꽤 성공적인 것처럼 보였다. 식량이 필요치 않은 3명의 노동력은 달에서의 생활을 풍족하게 만들어 주었다. 지구에서의 직접적 지원 없이 1년 6개월을 자급자족했고, 앞으로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혼자서 1년 이상을 버틸 수 있는 식량을 축적했다. 하지만 문제는 늘 걱정이 없다 생각했을 때 좀 일어나기 마련인지, 일이 발생했다. 싸움이 일어났다. AF들은 음식을 먹진 않았지만 전기충전이 필요했는데, 그것 때문에 일어난 싸움이었다. 우주선 내의 계급 체계를 위해 각 호간 능력치 설정을 다르게 해둔 것을 이용하여 가장 강한 2호가 나머지 둘에게 할당된 충전량을 빼앗아 스스로를 과충전하기 시작했다. 나머지 3호와 4호는 날이 갈수록 힘이 빠져가는 것이 보였다. 2호를 말리려 시도했지만 그가 내 말을 듣는 눈빛이 날 무시하던 연구원들의 눈빛과 같아서 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어느 날 둔탁한 파열음에 깨어나 보니 목이 달아나고 완전히 머리통이 뭉개져 바닥에 쓰러진 3호와 4호, 그리고 머리가죽이 벗겨지고 배선이 드러난 2호가 보였다. 놀란 내가 소리를 지르자 2호는 날 보더니 말했다. 너도 썼지? 2호는 방으로 도망치는 나를 쫓아왔다. 나는 내 기계팔로 있는 힘껏 쳤지만 구세대 팔로는 역부족이었다. 그는 나를 한 손으로 들더니 집어던졌고, 나는 캐비닛에 부딪혀 떨어졌다. 그 충격으로 1호가 캐비닛에서 흘러나왔다. 2호가 다가와 내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의식이 풀려가기 시작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리니 내 옆엔 쓰러진 2호와 정신이 돌아온 1호가 있었다. 1호는 전원은 돌아왔지만 고차원적인 사고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다. 묻는 말에 예, 아니오 대답만 할 뿐 어떤 일도 시키지 못했다. 아무래도 인간을 해치면 안 된다는 등의 가장 기초적인 프로그래밍은 고차원적인 사고와는 다른 방식으로 저장되어있던 게 아닌가, 추측할 뿐이다. 사실 그 대답을 듣기 위해 지구에 몇 번이고 교신을 시도했지만 불가능했다. 로봇이 미쳐버리면 날 버리겠다고 그들이 말하긴 했지만 난 그것을 믿지 않는다. 사실이란 어떤 것을 믿느냐에 따르니까. 내 추측이지만 4.5세대 AE들의 새 운영체제에 생긴 문제라면 지구에도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문제들이 발생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전 지구적 혼란을 만들어 인류 종이 위협에 빠졌을 경우를 상상 가능하다. 나는 예전에 바나나 농사를 지었는데, 한 바나나가 전염병에 걸리자 모든 바나나가 순식간에 죽어버렸다. 아틀라스사의 운영체제에 문제가 생기면 그들의 인공신체를 이식받은 사람들과 AE들이 모두 공멸하는 건 순식간이다. 그리고 내가 알기로 지구에 아틀라스사의 서비스를 받지 않은 사람은 없다.

AF들이 싸우며 달 기지의 생명유지장치를 망가뜨렸다. 이제 남은 산소는 약 3일치. 어떤 영화를 보면 산소도 만들고 물도 만들어 살아가던데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다. 아무래도 돌아갈 지구가 더 이상 없는 것 같기 때문이다. 그저 내 옆에 있는 아기 같은 1호와 마지막을 보내고 싶다. 2호를 막은 이후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하지만 말동무로

는 충분하다. 1호도 문제가 없었다면 날 공격했을 것이라는 걸 안다. 이 녀석이 날 지켜준 건 정말 운이 좋았다고밖에 말할 수 없다. 운이 좋았다. 달에 오게 된 것도,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때문에 여기서 마친다. 이를 듣는 지적 생명체는 인간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길 바란다. 철컹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녀의 실수인지 녹음은 끊이지 않았다. 이야기는 이어진다. 친구야, 내가 서른 중반에 애를 낳았어. 그런데 아이가 외눈증이었지. 태어나서 제대로 한 번 울어보지도 못하고 죽었어. 사람들은 뭐 그런 걸 낳았냐고도 했고 왜 진작 알아보지 않았냐고 나한테 물었지.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아이였고, 그 친구는 그저 운이 안 좋았을 뿐인데 말이야. 1호는 문장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은혜의 목소리의 떨림을 들곤, 참 슬픈 일이네요, 라는 위로를 전한다. 그녀의 찢그럭거리는 기계팔 소리가 간간히 들리다 녹음은 끝난다.

수상소감

어릴 적부터 SF를 좋아했습니다. 특히 필립 K 디크의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을 꿈꾸는가>라는 소설을 정말 좋아해서 ‘인간과 안드로이드의 구분은 가능한가?’ 따위의 생각을 중학교 때부터 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그 생각들에 살이 붙기 시작하면서 스스로 내린 결론을 누군가에게 들려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기쁩니다. 분량의 한계 때문에 담지 못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언젠가 다시 이야기해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

어느 날, 패스트푸드점에 혼자 앉아 햄버거를 먹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무도 서 있지 않는 카운터 앞을 서성거리다 그제야 키오스크를 보신 듯 그 앞에 서셨습니다. 하지만 그 분은 한참동안 주문을 못 하셨습니다. 키오스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셨던 겁니다. 그제야 달려온 직원은 한참을 설명하다가 그냥 카운터에서 주문을 받았고, 저는 그 장면이 어쩐지 슬프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인간은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기계들에게 외주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은 휴대전화 캘린더에, 다리는 자동차 등에 맡입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달할수록 그것들은 점점 복잡해져서 걸

모습은 우리와 닮아가지만 그것의 원리는 점점 낮설어져 갑니다. 아직 우리는 그것들의 원리를 이해하지만 언젠가 그 원리가 완전히 낯선 것이 되었을 때, 저는 그 할아버지처럼 점심 한 끼를 먹는 일에서마저도 불안을 느끼며 살아야 하는 건 아닐까요. 언젠가 코딩 한 문장 정도도 하지 못하면 밥도 먹지 못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나아가 그들이 낮설어지다 못해 우리를 배신해버린다면 어떨까요.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단순히 이용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들을 이해하려고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그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모두 그들의 부모인 바, 건방지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건 생각보다는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텔레마케터와 같은 감정 노동자들이 감정을 가진 인격체라고 받아들인 것은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이 오면 배신이라는 이 표현이 도대체 누구의 입장에서 배신이라고 말해지는지가 드러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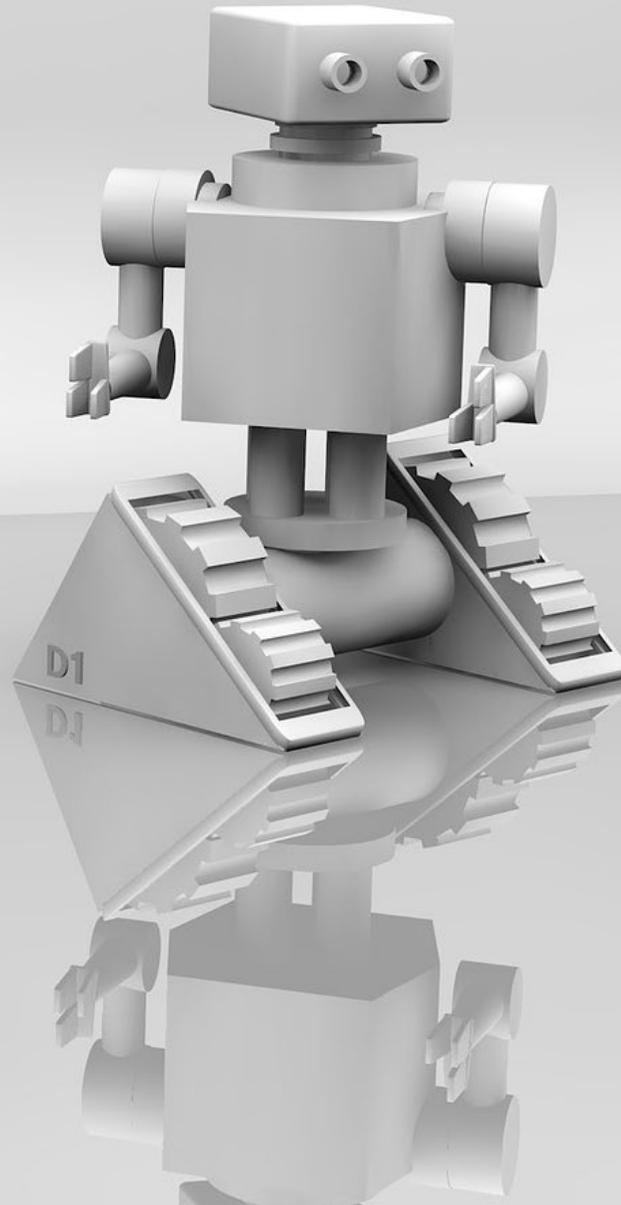
감상포인트

‘인간다움’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묻는 작품입니다. 작중 주인공인 ‘은혜’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인간의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사람

입니다. 사회 밑바닥 계층이며, 도박에 빠져있고, 열등감이 심한데다가, 잘 하는 거라곤 만만한 사람에게 욕지거리를 퍼붓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그녀도 사람일까요? 그렇다면 건장한 신체, 높은 지능을 통해 완벽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안드로이드는 왜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을까요? 이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통해 인간다움이란 순전히 인간의 입장에서 내려진 정의임에 부끄러워하고, 나아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 아님으로 밀어내진 인간들을 마주함으로써 이 논리가 정상 인간이라는 불가한 무엇을 상징할 때만 가능한 논리라는 것을 말하는 소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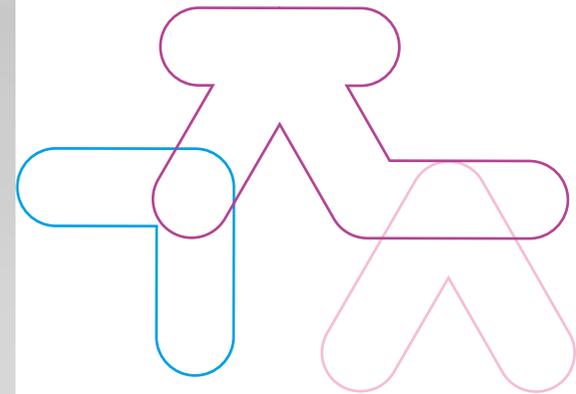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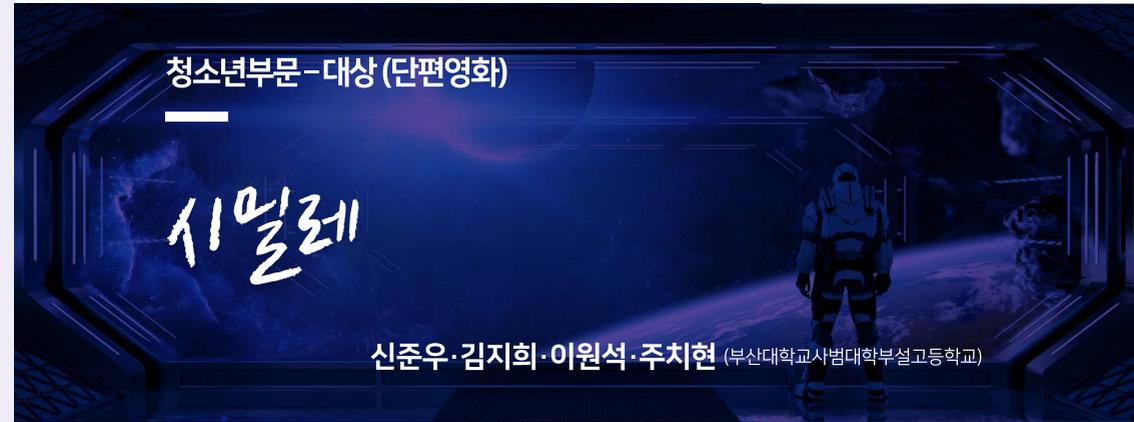
소설 전체에서 반복되는 은혜의 ‘운이 좋았다’는 말에 집중하고 읽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존재의 관점에서는 모두 예정된 섭리라고 하더라도 존재자에게는 우연한 일, 즉 은혜로 느껴지듯이 완전하지 못한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은 우연한 일에 불과합니다. 이 우연성을 믿는 일을 통해서 인간은 자신이 이룬 일이 순전히 자신의 재능 덕분이 아님을 깨닫기에 오만하지 않게 되고, 자신이 실패한 일이 순전히 자신의 과오 때문이 아님을 깨닫기에 무의미한 자책을 멈출 수 있게 됩니다. 그건 완벽한 신체와 완벽한 지능으로 대표되는 개조인간과 안드로이드, 그리고 단일 품종 바나나와 반대편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청소년부문

- 시밀레 ■
- 언제나 빛나리 ■
- 마지막 인간 ■
(A last per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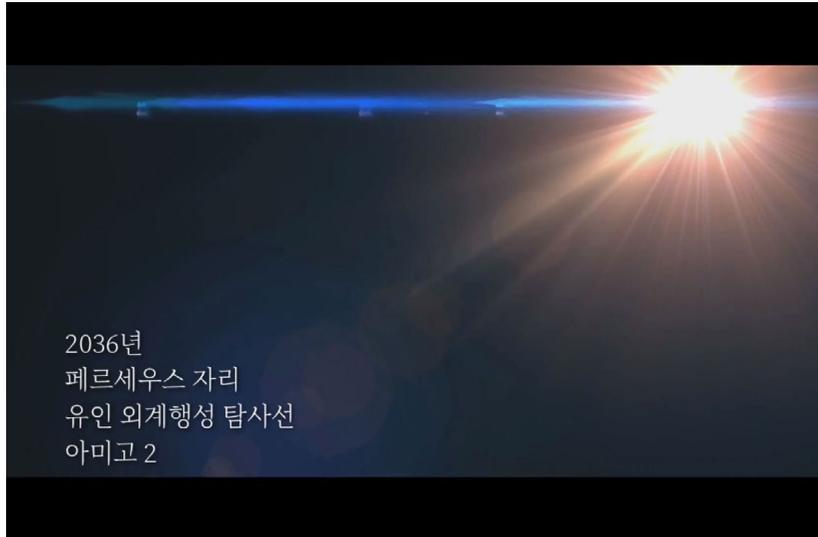


작품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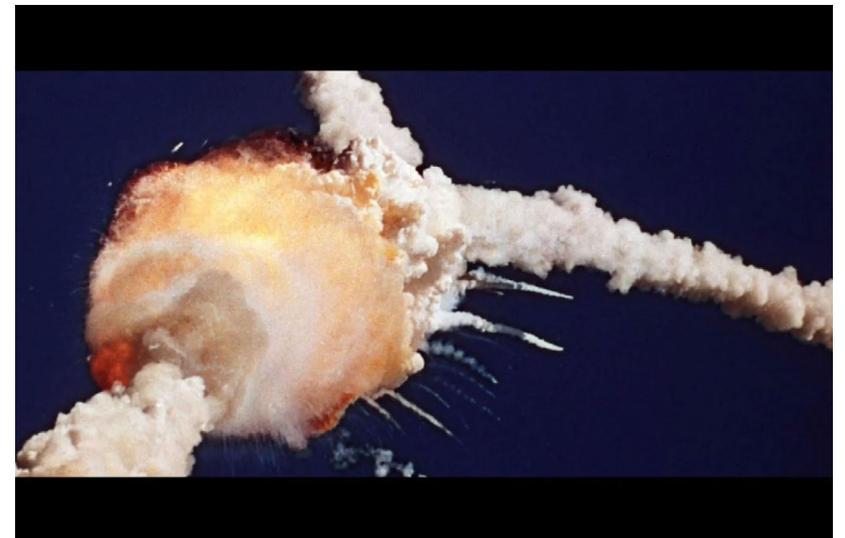
기술의 발전으로 이전까지는 관찰만 가능했던 심우주에 직접 사람이 갈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자 대 우주 시대가 열린다. 나라들은 자국의 이익과 인류의 미래를 위해 우주 개발과 특히 새로운 행성 탐사에 힘을 쏟는다. 대한민국에서도 생명 거주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훌륭한 행성을 발견하고 '영원한 친구'라는 의미의 '시밀레'라고 이름 붙이고 유인 탐사선 '아미고' 호를 보낸다. 지상에서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와 탐사선의 파일럿은 어릴 적부터 같이 꿈을 키워오던 죽마고우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기 상황을 두 친구는 함께 극복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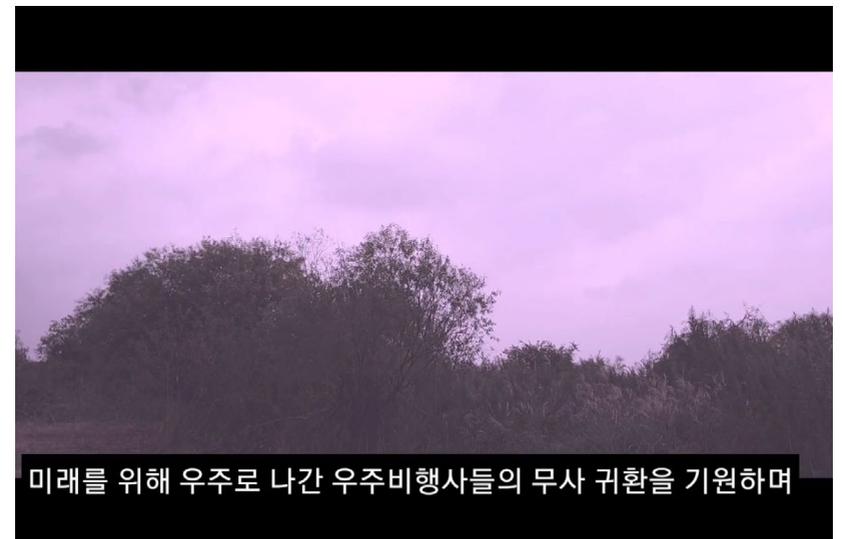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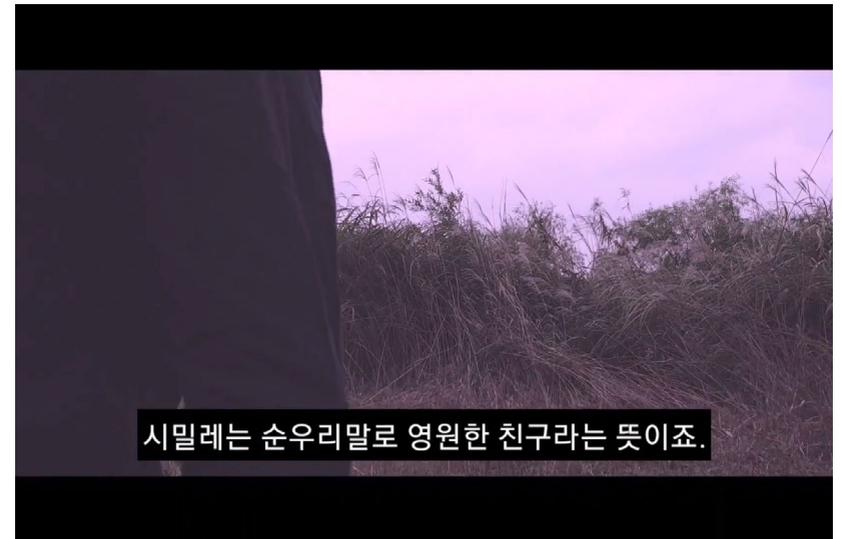
심사평

작품의 주제가 양호하고 제작 과정의 협동성과 제한된 환경에서 아이디어를 연출로 이어간 노력이 돋보인다. 앞으로도 SF 스토리텔링에 대한 관심을 이어가길 바란다.









본 작품은 단편영화로 공모전 홈페이지 (<http://ssfc.pusan.ac.kr>) 또는 YouTube (https://youtu.be/ohVsFYB8_18)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수상소감

결과를 듣고 아주 놀랐습니다. 많이 부족한 작품이었다고 생각했거든요. 팀원이 모두 고등학교 3학년생입니다. 때문에 각자의 학업과 진로 관련으로 바빴죠. 그 와중에 짬짬이 시간을 내고 스케줄을 맞춰 가며 만든 영상입니다. 일정을 맞출 수 있을지 긴장도 되고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으로 진이 빠지기도 했지만 다들 SF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만나서 토론하고 촬영, 편집하는 과정이 참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이렇게 멋진 결과까지 받게 되니 정말 기억에 남을 추억을 하나 만든 것 같습니다.

진짜 친구라면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아무리 오랫동안 떨어져있어도 서로를 느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작에 임했습니다. 작품에 나오는 두 친구의 이야기는 실제 저의 이야기에서 모티브를 얻기도 했고요. 작품을 만드는 것 자체가 우정을 쌓는 과정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원래도 친한 친구들이었지만 대회를 준비하면서 더 친해진 것 같거든요. 우리의 진심이 전해져서 다른 사람들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된다면 정말로 행복할 것 같습니다.

SF 영화를 만든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새로운 세계관 하나를 만드는 것은 매력적인 일이죠. 설정들을 만들고 그 설정을 어떤 식으로 전달할지 많은 고민과 토의를 거쳤습니다. 소품으로,

영상으로, 때로는 나레이션이나 대사를 통해서 표현했습니다. 시간의 부족함과 여러모로 미숙한 능력 탓에 보여주고 싶었던 것의 많은 부분을 포기해야했던 것이 아쉽습니다. 고생을 한 번 해보니 영화감독님들이 정말 대단해보이더군요.

‘한국은 SF계의 무덤이다’라는 말을 심심찮게 들곤 합니다. 한 명의 팬으로서 참 슬프지만 그동안 국내에서 SF가 크게 활성화되지 못한 것도 사실이죠. 이와 같은 대회들이 국내에서의 SF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청소년부문-최우수상 (웹툰)

언제나 빛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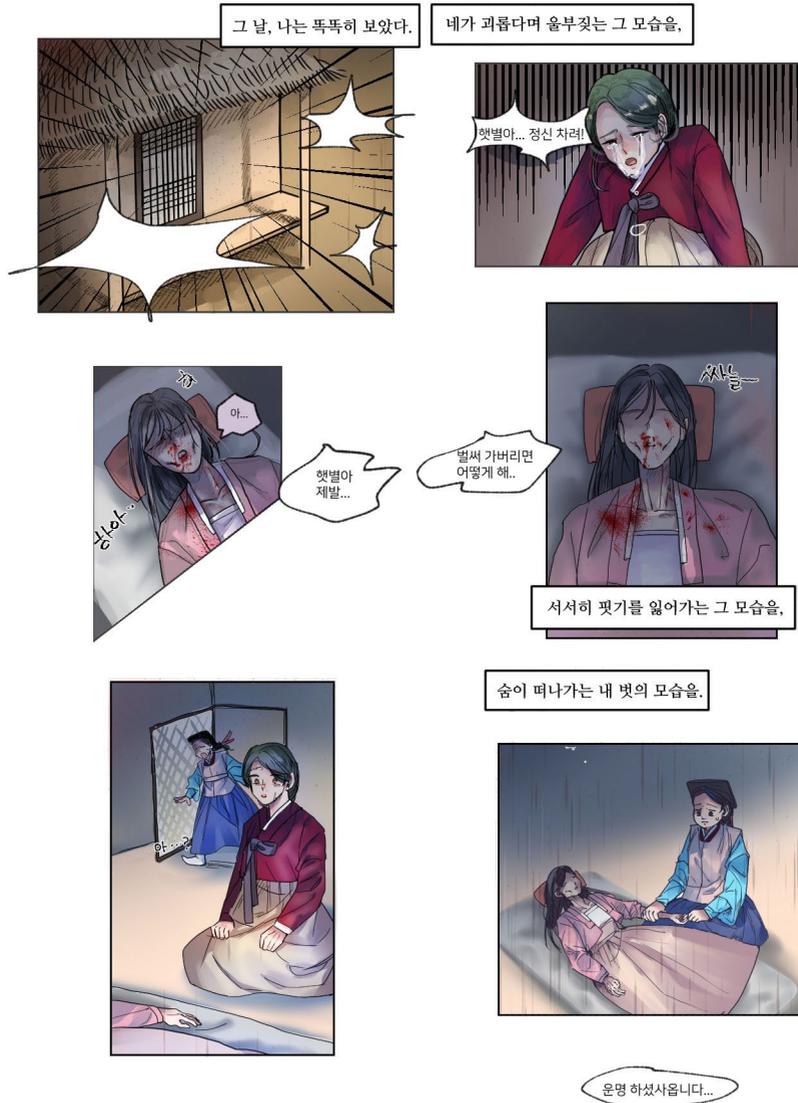
이향미 (부산 양덕여자중학교)

작품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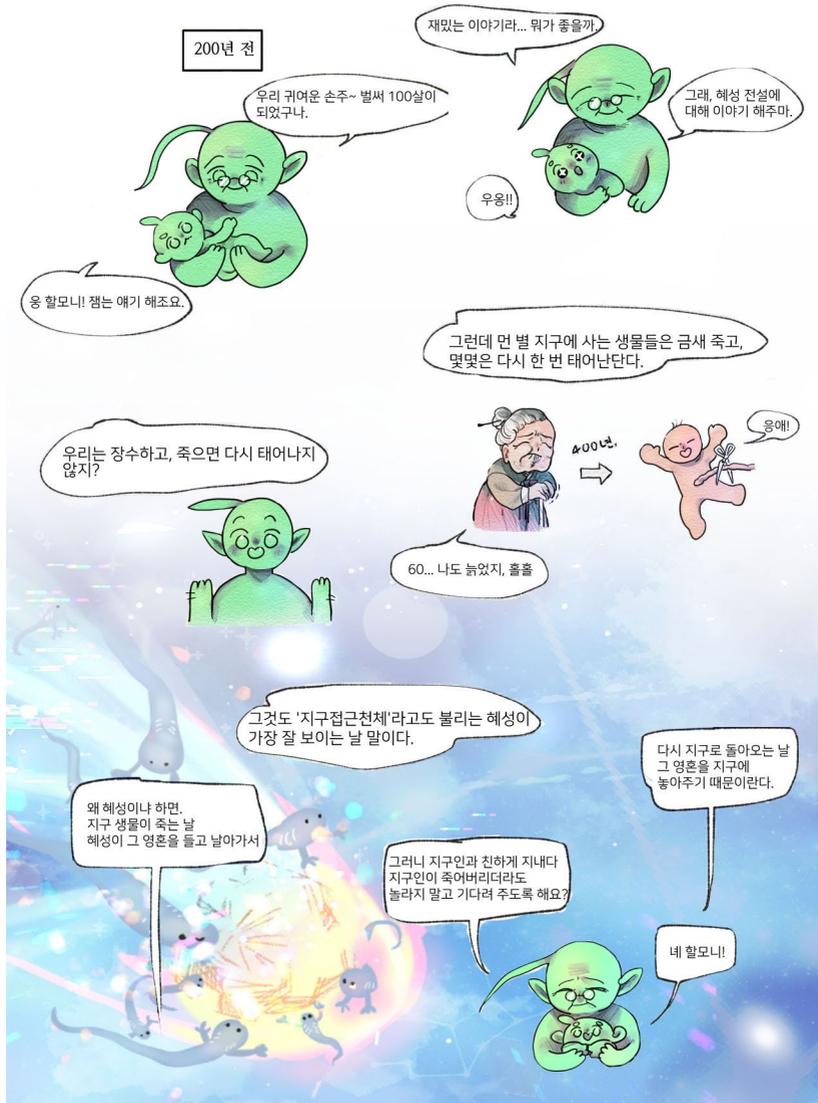
오래전 죽은 자신의 인간 친구와 그 친구를 다시 만나기 위해 600년 동안 지구에 머물던 외계인이 결국은 재회하게 되는 서로 다른 종족의 우정 이야기를 스크롤 뷰 형식의 만화로 그려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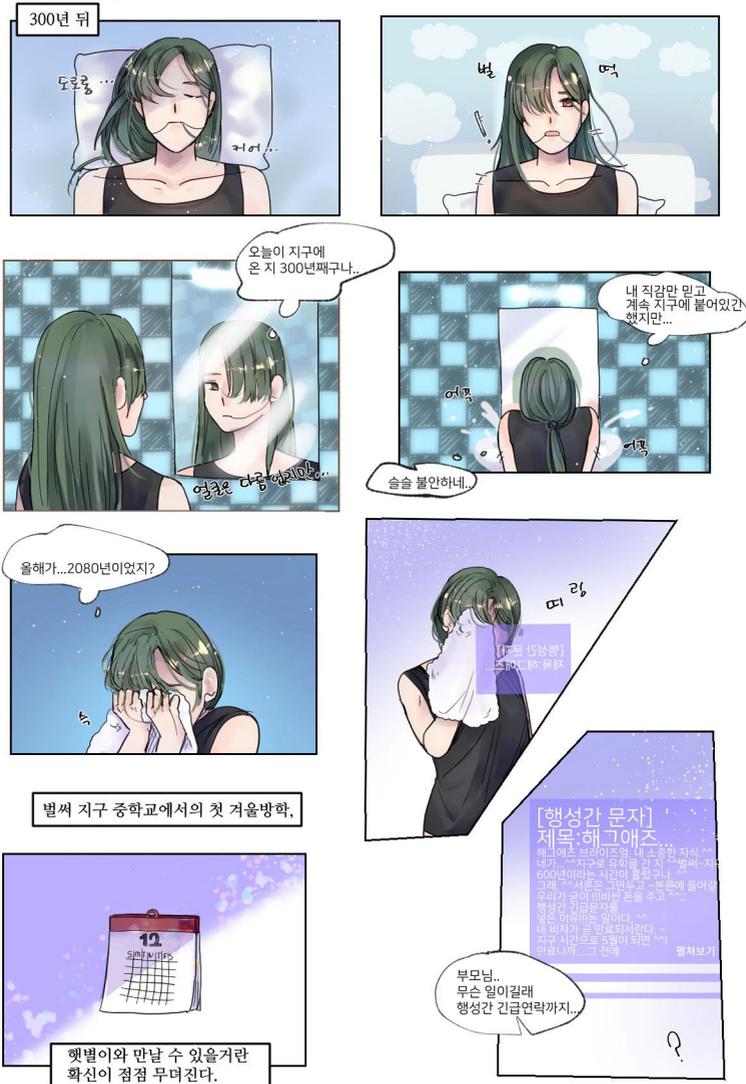
심사평

이야기 구성과 작화 등이 양호하였다. 본선대회 발표에서 뚜렷한 주관을 표현한 점도 좋았다. 앞날이 기대되는 잠재성이 풍부한 응모자이다.



글/그림 이항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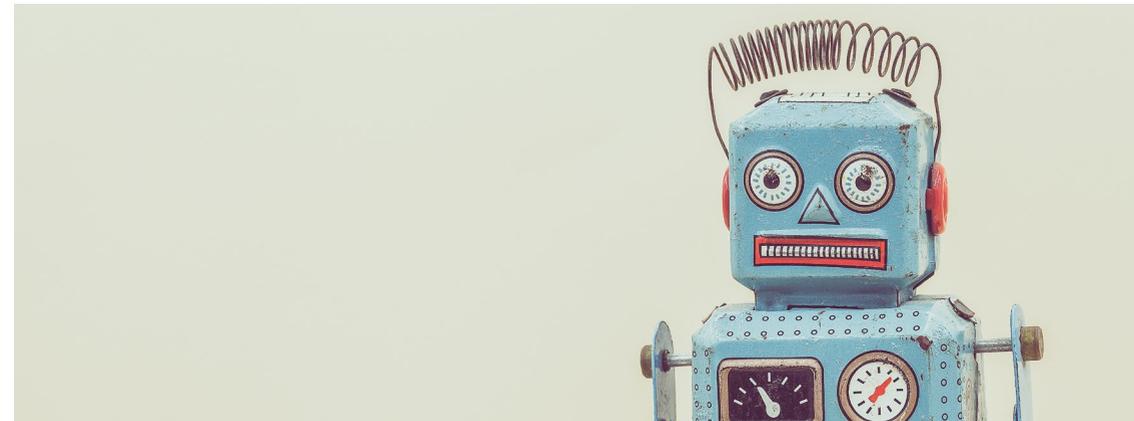






수상소감

인생 처음으로 웹툰을 그려서 받은 첫번째 상이라 저에게는 의미가 큰 공모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 작품 만드는 데 도움 주신 친구들, 선생님, 그리고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해당 공모전에 참여하고, 상까지 받게 되어 정말 상상도 못한 선물을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공모전에 제출할 작품을 만들기 위해 들인 시간과 노력 모두 아깝지 않았고 오히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소중한 기회를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청소년부문 - 우수상 (단편소설)

마지막 인간 (A Last Person)

이은용 (대전 관저중학교)

작품소개

'우주에서 인간은 혼자인가'라는 주제에 대한 이중적인 답변을 위해 기획되었다. 2100~2120년 미래사회를 배경으로 숨겨졌던 행성으로 이동하는 이들과 그런 상황을 거부하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그렸다.

심사평

주제도 좋고 이야기 전개 아이디어가 좋았다. 다만 설정 등에서 좀 더 공부하고 어떻게 작품에 반영할지 고민한다면 좋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구 에는, 우주 에는 '인간' 만 존재하지 않는단다. 아이야.]

푸른 몸에 얼굴에는 검은 자국들이 무늬처럼 새겨져 있고, 삐쩍 마른 손을 가진 '소녀'는 나에게 이야기 했다. 나는 서서히 파악되는 상황과 종말에, 풀숲인지 아닌지 모르는 곳에 주저앉았다. 아, 아아. 하염없이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러나 슬프지는 않았다. 나에게는 더 이상 소중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눈물은 그저 의무적인 것이었다. 나 밖에 눈물 흘릴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나만이.

흐려진 시야 사이로 나는 다시 그 소녀를 쳐다보았다. 소녀는 여전히 미소짓고 있었고, 그 소녀 뒤로 보이는 행성은 마치 태양처럼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붉은 불길로 휩싸이며 생명을 앗아가는 그 아름다운 광경이란. 나는 나의 소중한 이와 내 생의 의미를 모두 가져가 버린 '그 사건'의 장면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그래, 이 모든 종말의 시작은, 내 삶의 죽음의 시작은 모두 '그 사건' 이었다.

나는 차오르는 과거의 기억 속에서 점점 다가오는 어둠 앞에서 조용히 눈 감았다.

2100년까지 발명된 기술 중 최첨단 기술을 모두 적용하였다고 뉴스에서, 사람들의 입에서 자부하는 우주선에 우주비행사들이 탑승했다. 철저한 훈련과 검증을 받은 4명이었다. 그들은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저 우주로 가기위해. 그 순간만을 위해 노력한 이들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울려 퍼졌다. 시청자들은 모두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과 곧 출발할 우주선에 대해 생중계하는 뉴스를 보았다. 그리고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홀로그램으로 그 순간을 3D로 보던 나는 박수갈채를 친 사람들이 외치는 함성과 같은 소리를 따라 외쳤다.

5, 4, 3, 2, 1 발사!

우와아_. 내 입에서 감탄사가 나오고, 우주 비행선은 엄청난 불길과 먼지를 휘 날리면서 날아올랐다. 오르고 올라서, 아파트 보다 더 높이. 구름보다 더 높게.

이제 뉴스에서는 열심히 떠오르고 있는 우주선에 탑승한 4명에 대해 이야기 해주고 있었다. 하나같이 어마어마한 실력을 가진 사람들. 이라고 말이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뉴스를 틀어놓은 채 의자에 앉아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10. 엄마에게,

나는 이 편지를 100편 정도 써야했다. 그러면 엄마가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엄마는 이제 홀로그램 속에서 환히 웃고 있었다. 앵커가 이 우주 비행사는, 어느 대학 출신이며.. 하고 엄마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었다. 조금 심술이 나서 쓰던 편지의 글씨체를 일부로 빼뺄 빼뺄하게 썼다. 나는 엄마 얼굴을 본 것이 손에 꼽는데. 아는 것도 달랑 이름이랑 생김새, 그 따뜻함 뿐인데. 나보다 앵커가 엄마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았다. 흥.

보고싶어요.

한 문장이 쓰여졌다. 더 이상 쓸 말이 없어서 고민하면서 다시 홀로그램으로 시선을 던졌다. 이제 뉴스에서는 대기권을 나와서 우주로 향하는 우주선을 보여주고 있었다. 우주선은 검은 공간을 오르고, 오르고, 올랐다. 처음 출발 했을 때 보다 조금 훌쩍해 진 것 같기도 했다. 그리고,

이제 위성의 신호가 끊길 때 즈음에.

'그 사건' 이 일어났다.

우주선은 무언가에 부딪혔다. 앞부분이 빠르게 뭉개지고 내부 부품이 폭발하는 소리가 생생하게 들렸다. 우드득, 쿵. 검은 우주 공간에 알록달록 색채가 물들었다. 우주선에 타고 있던 이들은 미처 대처할 새도 없이 붉은 물감을 덧칠하며 죽었다.

그리고 곧이어 밝은 빛이 위성에 포착되었다. 마치 다이아몬드가 앞에서 빛나는 것처럼, 밝고 투명하고 아름다운 빛이었다. 이는 분명 우주선이 부딪힌 어두운 공간에서 나는 빛이었다. 마치 공간이 깨진 듯, 황홀한 풍경이 렌즈로 쏟아졌다. 그리고 그 보석은 마치 우주선과 부딪힌 충격에 부서진 듯 보이는 부분뿐만 아니라, 점점 옆으로 퍼져 나가기 시작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퍼져 나갔다가 보다는 검은 우주 공간에 숨겨져 있던 황홀한 공간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것처럼 보였고, 그게 사실이었다.

얼마 뒤에, 뉴스 에서는 우주 암흑 물질과의 반응을 통해 투명 상태로 존재 하면서 우리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지구의 궤도에서 달과 부딪히지 않고 돌고 있던 '숨겨진 행성'에 대해서 떠들어댔다.

나의 세계는 '그 사건'으로 인해, 새로 발견된 행성의 표면과 같이 부서져 버렸지만, 아무도 부서진 내 세계에 대해, 엄마의 삶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않는 듯 했다. 사람들은 그저 눈앞에 보이는 반짝임과 '새로운'것 이라는 광기에 사로잡혀 어두운 면을 보려하지 않았다.

1

"어디로 갔어?"

"24-G 번 골목길로! 잡아!"

다 다 다 다. 땅을 박차는 소리가 점점 다급해졌다. 헉, 헉 하고 내쉬는 숨소리도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다. 나는 골목길에 휩싸인 어둠 속으로 파고 들어, 언제나 같이 내 감을 맹신하며 걷고, 방향을 틀고, 또 걸었다. 그리고 멈췄다. 경찰들은 나에게 던져 붙인 GPS위치를 보다가, 한 곳에 멈춰있는 점에 도망치던 포획 대상 인물이 GPS를 바로 떼는 것이리라 판단하고 GPS를 회수하기 위해 얇은 어둠 속으로 발을 들였다. 그들의 손에는 전기충격 도구, 레이저로 짚은 대상을 바로 포획하는 전자 그물망 등 갖은 첨단 도구들이 들려 있었으나 그것은 내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나는 경찰 두 명이 한숨을 내쉬면서 떨어진 GPS 기계를 줍는 순간과 동시에, 높은 건물에서 아래로 뛰어내렸다. 흥, 하고 바람 가르는 소리가 골목길에 울려 퍼지고, 경찰들이 이상함을 감지하여 위를 올려다보는 순간에 난 그들을 향해 후추 가루와 폭발 물질이 섞인 폭탄을 던졌다. 그리고 재빨리 검은 마스크를 올려 썼다. 타닥, 하고 내가 착지했고 경찰들은 당황했다. 나는 당황한 경찰들의 주머니에 있는 첨단 도구들을 손에 걸며 빼앗은 뒤, 뒤도 안 돌아 보고 달렸다.

"어,어어..?"

"평"

내 말소리와 동시에 뒤쪽에서는 폭탄이 터지는 소리가 들렸다. 경찰들의 비명 소리와 콜록임이 귓가에 스쳐 지나갔다. 나는 다시 반대 쪽 골목길을 달리고 달려서, 숨겨둔 거처로 겨우 들어왔다.

"하, 젠장. 오늘도 간신히 피했네."

나는 경찰들에게 빼앗은 물건들을 한 구석에 쌓고는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다. 물론 2119년 같이 발달된 시대의 침대라고 보기에는, 단순히 매트리스뿐인 초라한 것이었지만 개의치 않았다. 괜히 좋은 곳에 지내보겠다고 밖으로 싸돌아다니다가 경찰들 손에 끌려가, 그 죽음의 행성 -물론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모두 아름다운 천국이라고 이야기 하는 곳- 에 갈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죽음의 행성. 나와 엄마의 세계를 부순 그곳. 난데없이 나타나, 사람들을 홀린 곳.

그곳에 가느니 차라리 이 지구에서 죽는것이 훨 나았다. 비록 오늘도 경찰들을 피하고 그들에게 경고하느라 있는 힘 없는 힘을 다 쓴 채 이지만, 이리 도망치고, 숨고, 피하는 삶을 살 바에는 차라리 당장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이야기하는 이도 있기는 했지만. 그러지는 않을 것이고 그럴 수 없었다. 왜냐하면, 내가 죽으면 엄마를 기억해 줄

사람은 더 이상 없는 것이니까. 나는 작게 틀어놓은 홀로그램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들어주다가,

/정부에서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대규모 이동 프로젝트가 2120년 안에 마무리 될 것으로 온 나라가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러니 아직 아름다운 행성-뚝./

발로 차 꺼버렸다. 저런 개소리는 들을 필요 없다는 것을 난 알고 있었다. 이미 지구에 남기로 마음먹은 이상, 나에게 '아름다운 곳'은 더 이상 없었다.

0

2100년. 지구는 새로운 행성을 발견했다. 이 행성은 지구를 돌던 행성이나 그 모습이 감추어져 있어서 여태껏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곳이었다. 그러나 우주비행선 폭파 사고, '그 사건'을 통해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행성 EG-2, 사람들이 부르는 말로는, '아름다운 행성'

이 행성의 겉모습이 보석조각이 촘촘히 박힌 듯 빛나며 장관을 선사했고 무지개와 황홀한 우주의 빛이 감싼 그 풍경은 너무나도 아름다웠기에 붙은 이름 이었다.

사람들은 당연히 '아름다운 행성'을 조사하는데 수년간 광적으로 노력했다. '지구 근처의, 숨겨져 있던, 새로운 행성.' 이 키워드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차고 넘쳤다. 그리고 수년간의 탐색 끝에 나온 결과는,

'사람이 살기에 너무나도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는 것.

미세먼지와 각종 매연에 휩싸이고 물은 반드시 정제해 먹어야하는, 쓰레기 더미로 덮힌 지구보다도 더, 사람이 살기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 지구와 비슷한 중력과, 깨끗하여 그냥 마실 수 있는 물, 맑은 산소와 아름답다 못해 황홀한 경치. 사막이 없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면적으로 따졌을 때는 지구와 비슷한 면적을 가진 곳 이라는 것.

이에 사람들은 환호했다. 그리고 너도나도 그곳으로 가기 시작했다. 풍부한 그곳의 자원과 생태는 사람들을 유혹했고 사람들은 그것에 홀렸다.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대규모 이동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그 행성으로 실어나르려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다. 정부와 부자들이 자신의 돈을 써가면서도 다른 이들을, '아름다운 행성'으로 이주 시키려는 것은 그들을 지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부려먹기 위해서라는 것이 명백히 보였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혹은 외면하려 하고 그저 아름다운 행성의 겉모습에 홀려 이주 동의서에 싸인 하고, 그곳으로 향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 -값싼 노동자들- 은 수없이 죽어 나갔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개의치 않았다. '그 사건' 이 대규모로 되풀이 되는 것. 그게 프로젝트의 실상 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알기에, 뼈저리는 그 상실감과 고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비록 그곳으로 나를 옮기려는 경찰들에게 쫓기고 숨어 사는 삶을 살더라도. 결코 죽음의 행성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 마음먹었다.

2

그렇게 마음먹고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다. 나는 여타 일상처럼 내 생체 시계가 나를 깨우면 일어나고, 경찰들에게 걸리지 않게 골목 골목 길을 돌아다니며 종종 사람들이 이주를 하여 놓고 간 음식이나 물품들을 챙기다가 다시 돌아와 줄리면 잠이 드는 것을 반복했다.

뉴스는 어느 순간부터 나오지 않기 시작했고, 종종 골목길을 돌아다니다가 마주쳤던 경찰들도 눈에 띄지 않았다. 나는 마지막 남은 생수로 목을 축였다. 이제는 더 이상 골목길을 전전하며 물을 챙기기도 어려웠다. 이 근방을 돌아다니며 물품을 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었다.

"젠장. 거처를 이동해야 하나."

나는 탄식을 내뱉으며 중얼거렸다.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큰길로 나가 편의점이라도 가는 것이 좋을까. 결국은 어느 선택이든 나가야 한다는 것에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다. 푸석한 감촉이 느껴졌다.

나는 침대에서 내려와 비척 비척 몸을 움직였다. 그리고 전에 경찰들로부터 빼앗은 무기들을 주머니에 최대한으로 쑤셔넣었다. 지금은 밤일까 낮일까. 생체 시계도 이제 정확히 믿을 것은 못되었기에, 나는 그저 지금이 어둠이 내려앉은 밤이기를 빌며 거처를 벗어났다.

골목길은 구불구불 이어져 있었고 그곳을 나는 능숙하게 걸어 나갔다. 걷고, 걷고, 또 걸었다. 좁은 골목길에는 나 혼자 뿐이었고, 터덜 터덜한 발걸음이 울려 퍼지면서 그나마 드는 외로움을 달래 주었다.

...골목길을 뒤덮던 어둠이 서서히 사라졌다. 주변이 밝아지기 시작했다. 나는 곧 큰길에 도달한다는 사실에 주변을 살피며 경계를 시작했다. 아직 누가 남았는지 몰랐고 밖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알 수 없었기에. 그리고 발걸음을 내딛을 때마다 쏟아지는 빛에 나는 두 눈을 찡그렸다. 하얗게 변했던 시야가 시간이 지나자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나는 큰 길 쪽으로 고개를 빼꼼 내밀었다. 사람들이 다 떠났는지, 거리는 삭막했다. 고개를 올려 하늘을 보면 곧 이 지구를

칠 것 같은 높이에, 거대하고 아름다운 그곳이 있을 뿐이었다. 나는 그제서야 체감할 수 있었다. 그리고 알 수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그곳으로 향했다는 것을.

나는 몸의 힘이 쭉 빠진 것 같은 느낌에, 골목길과 큰 길의 경계 사이에서 주저앉았다. 아름다운 그 행성이 내뿜는 빛은 내 몸의 반 정도를 휘감았다. 나는 솟구치는 외로움과 슬픔에, 울었다. -내 가족을 죽인 그곳을 사람들은 아름답다고 한다. 모두 그곳으로 향하고 싶어 하고, 그곳으로 향했다.

3

나는 그렇게 하염없이 울다가, 눈물에 비쳐 울퉁불퉁하게 보이는 그곳을 다시금 바라봤다. 몸속이 울렁거리는 느낌이 들었고, 나는 이 느낌이 분노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간 그 행성이 너무나도 싫어서. 원망스러워서.

나는 주저앉은 몸을 겨우 힘을 짜내어 일으켰다. 그리고 그 행성을 바라보던 고개를 반대편으로 돌렸다. 나는 그 행성을 등 돌린 채, 나에게 분노와 원망을 심은 그곳을 바라보지 않기 위해 걷고 또 걸었다. 피하고 또 피했다. 하지만 결코,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것을 안다. 참담한 심정이었다. 하지만 내 힘으로는 더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그저 이렇게 하염없이 걷는 것 뿐이.

4

저벅, 저벅.

나의 것이 아닌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그 기척에 나는 황급히 몸을 낮추고 근처에 있는 빈 상자 속으로 숨어 들었다. 그리고 뚫린 창문 구멍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다. 이상한 생김새를 갖춘 이들이었다. 푸른 몸에 얼굴에는 검은 자국들이 무늬처럼 새겨져 있고, 삐쩍 마른 듯한 손을 가진 이들. 거기에 수색대 같이 보이는, 다양한 장비를 갖춘 옷을 입고 있었다. 만약 그림자만 본다면 사람이라고 쳐줄수도 있었지만, 분명 밝은 상태에서 보기에는 사람이 아닌, 처음 보는 모습들이었다. 마치 외계인 같은.

나는 그들의 모습을 흘려보다 그 3명 중 가장 키가 작은, 어찌 보면 소녀 같은 이와 눈이 마주쳤다. 그 심연과도 같은 것을 정확히 눈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재빨리 구멍으로 보던 것을 멈추고 고개를 돌리며 몸을 더 웅송그렸다. 그리고 모습을 숨기려 최대한 노력했다. 하지만 그들은 점점 내 쪽으로 다가왔다.

저벅, 저벅, 저벅.

심장이 쿵쿵쿵 뛰었다. 머릿속에서는 여러 생각들이 난동을 부렸다. 저들은 누구일까. 무슨 일로 그 거리를 거닐고 있던 것일까. 나는,

나는.. 어떻게..

끼익,..

내가 숨어 있는 빈 상가의 유리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매우 가까이서 나는 소리였다. 나는 쿵쾅거리며 크게 들리는 이 심장 소리가, 차라리 멈췄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고, 그들은 결국 숨어있는 나를 발견한 듯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다. 저벅거리며 나는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렸다. 그와 마찬가지로 내 심장소리도 점점 커졌다.

탁.

소리가 끊겼다. 나는 떨리는 손을 뒤로 한 채, 벽에 기댄 몸살 살짝 돌리면서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마주친 - '그들'. '그들' 중 나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온, 소녀 같은 모습을 한 아이가 내게 물었다.

[넌 어느 별에서 왔니?]

참으로 이상한 질문이 아닐 수 없었다.

5

"...어느 별 이라니..."

나는 당황스러운 지금의 상황과 질문에 떨리는 말투를 최대한 감추려 노력하며 되물었다. 그러자 그 소녀는 작게 웃고는, VR 안경 같이 생긴 -구시대적인- 고글을 나의 눈가로 내밀며 씩씩했다. 분명 그것이 위험한 것일 수 있다고, 피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두려움과 호기심에 사로잡혀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것이 씩씩하자 순식간에 시야가 밝아졌다. 분명 상가의 구석진 곳에 있었건만. 내가 보았던 금간 벽과 창가에 비친 무너진 건물들은 사라지고, 반짝이는 도시가 보였다. 이 도시의 모습은 분명, 사람들이 떠나기 이전의 '지구의 모습'과 비슷했다. 물론 더 화려하고, 처음 보는 건축 양식으로 지어져 있기는 했지만.

이곳에서 나는 그 도시를 바라본 채, 드넓은 풀숲인지 아닌지 모를 곳에 쪼그린 그 자세 그대로 있었다. 그리고 분명 사람들이 아닌 '그들'이 시선에 걸렸다. 주변 배경은 바뀌었지만, '소녀'와 그들은 분명 암흑 같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경악했다. 이제 그들은 아까 보았던 수색대 같은 모습이 아니라, 그들 특유의 번쩍이는 스타일이 눈에 띄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다. 물고기 비늘 같은 모습의, 처음 보는 스타일의 옷 말이다. 나는 그 모습에 이제서야 확신할 수 있었다. 그들은 외계인 같은 것이 아니라, 외계인이라고. 그리고 나는

지금 그들이 보여주는 이상한 공간에 와 있다고 말이다.

“너희... 누구야.”

간 크게도 나는 그들에게 그렇게 물었다. 머릿속이 너무 혼란스러워 그런 것 일수도 있었다. 나는, 이곳이 지구를 벗어난 곳이 아니기를 믿고 또 믿었다. 그렇게 살아온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데, 단 한 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는 없기에.

6

'소녀'. 내가 소녀라 이름 붙인 외계인은 웃었다. 해맑게 웃었다. 그리고 몸을 숙여 나에게 가까이 다가와 말했다.

[너는 지구에서 벗어나지 않았구나. 그 -유토피아- 로 가지 않았어.]

나는 아까도 잠깐 들었지만 익숙하지 않은, 찢어지는 듯한 그 소녀의 목소리에 인상을 무의식적으로 찌푸리고는 물었다.

"유토피아라면, ... 그 이상한, 숨겨졌던 행성 말하는 건가?"

[응. 곧 부서질 환상의 섬 말이야.]

소녀는 나의 물음에 답했다. 아름다운 행성은 곧 부서질 환상의 섬이라고.

"환상의 섬?"

그것이,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나는 잠시 알지 못했다. 정확히는 알고 싶지 않았다. 그렇지만 내 부정을 부정하듯, 그 순간에 커다란 폭발음이 들려왔다. 폭발. 그 생각에 먼저 두려움이 앞섰다. 나는 '그 순간'이 겹쳐지는 것 같은 그 소리에, 당황스러움에 나에게 쓰인 고글을 두 손으로 더듬다가 벗었다. 그러자 밝았던 도시가 아닌, 폐허가 된 세상이, 현실이 다시금 나타났다. 내 주변에 있던 '그들'은 더이상 보이지 않았고, 대신에 건물을 빠져나와 하늘을 보자, 나의 모든 것을 잃었던 '그 순간'처럼. 불길이 솟으며, 폭발하는 소리가 들리며,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가며- 모든 이들이 이주한 '아름다운 행성'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 과거에 보았던 '별의 죽음' 다큐멘터리 영상이 겹쳐 보이는 듯 했다. 그러나 보여지는 파괴의 현장과 달리 이곳, '지구'로는 여파가 오지 않았다. 그저, 그곳만 스스로 불길을 내뿜으며, 기막힌 장관을 선보이며 붕괴할 뿐 이었다.

나는 저곳으로 떠난 이들을 생각했다. 가까운 이들은 없었지만, 과거에 만났던 이들은 많았다. 엄마의 친구, 옆집 아이, 자신이 잔혹한 현실에서 도망치는 것을 도와주셨던 분들-. 이상한 느낌이었다. 모든 것이. 튼니바퀴가 틀어진 것 같이. 어딘가 어그러진 것 같았다. 현실이 아닌 것 같았다. 아니, 현실 이면 안 되는 건가.

나는 손에 들려있는 고글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썼다. 그들이 이것이 현실이 아님을 증명해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했다. 그리고 그 소녀는 아직도 나의 앞에 서 있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넌 알고 있었어..?"

무언가 허탈한 목소리가 나왔다. 나는 그 소녀를 흔들리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무언가의 답변을 기대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소녀는 까르륵, 웃고는 답했다.

[이제 우주에서 '인간'은, 너 혼자야.]

이것은 내가 원하던 답이 아니었다. 동공이 확장되고, 손이 다시 고글을 더듬기 시작했다. 그리고 주변도 더듬었다. 여기는 폐허가 된 '지구'인지, 아니면 푸르른 것이 펼쳐진 '그들의 세상'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부서진 벽이 만져지면서도 부드러운 풀과 같은 감촉도 느껴졌다. 소녀는 내가 혼란스러워 하는 것을 바라보며, 이어 말했다.

[그 행성은 너무나도 불안 했거든. 너무나도 아름다웠지만, 너무나도 부서질 듯 위태로웠어. 수명을 다해 갔던 거야.]

수명을 다해 갔던 거야. 그 소리가 내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못한 채, 그저 그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다. 어느덧 찢어지는 듯한 소리에 대한 불쾌감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것은

더 이상 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므로.

[‘우리’는 그것을 알고 지구로 대피하여 내려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거 알아? 너희는 내려간 우리를 모두 죽였어. 아니, 그저 우리가 지구에서 생명활동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다이아몬드’를 ‘돈과 가치’라는 고리 안에 가두어 만지지도 못하게 했을 뿐이겠지만. 결국에 죽게 만든 것은 맞잖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소녀는 이제 내 앞에서 빙글빙글 돌며 이야기를 해갔다. 그 여유와 말투는, 마치 소녀가 준비된 대본을 읽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도 했다.

[너희는 '인간'들만 생각했어. 다른 종족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지. 누군가의 필요는 모두 묵살되었어. 단순히 누군가의 사치를 위해.]

나는 고개를 조금 숙일 수 밖에 없었다. 그들은 나에게 무엇을 알고 싶었던 것일까. 인간의 무엇을 비판하는 것일까. 그 대답에 대한 형태가, 잔혹한 현실이 서서히 잡혀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우리는 계획했지. 그들은 정작 누구보다 가까이 두고 있었지만 알지 못한 우리 행성을, 죽음의 행성을-그들의 눈에 보일 수 있게 표면을 도려내고, 폭파 시켜서 보이는 아름다운 상처로 유혹하자고.]

"아-."

나는 탄식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부르는 그 행성과 그 행성이 밝혀지는 장면을 떠올렸다. 충돌에, 드러나는 보석 같은 빛에. 그런데, 그것이 계획된 것 이라니. '그 사건'의 희생과 죽음이, 계획된 것 이었다니. 돌이 세계 머리를 친 것 같은 느낌 이었다. 나는 그 소녀를 원망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무어라 따지며 말할 수 없었다. 후, 하.. 하며 숨을 쉬려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물속에 빠지는 듯 목이 막혀 왔기에. 소녀는 이런 나의 상태를 아는지, 모르는 지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말을 이어갔다. 나는 그만, 이라고 말하지 못했다.

[그리고 성공했어. 그들은 대규모 이동을 하더라. 우리는 그 사이에 아래로 내려왔지. 그리고 다시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우리만의 세상을 만들어 냈어. 봐, 저 아름다운 파괴의 현장을. 행성의 죽음을!]

소녀가 마르고 푸른 손을 뻗어 뻑뻑한 도시의 위쪽을 가리켰다. 그곳으로 시선을 돌리자, 아까 내가 '지구' 에서 보았던 그 행성의 폭발이 작은 크기로 보였다. 아니, 이곳도 '지구'였지. 나는 땅을 짚은 손을 주먹으로 꼭 말아 쥐었다. 결국 지구의 어느 곳이든 간에, 저 폭발은 결코 거짓된 것이, 환상이 아니란 것을, 믿을 수 없었다. 믿고 싶지 않았다.

"말도안돼..!"

나는 울부짖듯 그 소녀 앞에서 외쳤다. 그 소녀는 그저 웃을 뿐 이었다. 그리고 나에게 속삭이듯 추가적으로 이야기했다.

[마지막 남은 인간이여, 부디 고독 속에 환희를 느끼며 잠들기를.]

참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말이었다.



수상소감

흥미를 가지고 있던 SF 장르의 작품을 제가 처음으로 직접 쓰게 된 계기가 된 것이 제1회 김진재 SF 어워드였습니다. 그 계기를 통해 SF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관련 분야의 작품들을 많이 접하던 차에 2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출품하게 되었는데, 제 1회 김진재 SF 어워드에 이어 2019년에 열린 제 2회 김진재 SF 어워드에서도 수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뜻 깊었습니다.

덕분에 이 SF 어워드에 출품을 하려는 과정에서 작품의 배경이 되는 정보를 찾아보고, 과학적으로도 학습해가며 많이 발전해 나갈 수 있었고, 작품 스토리를 구상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이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지 작품을 쓰고, 내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발표 기회가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 작품의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또 다른 작품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작품마다 가진 많은 이야기와 의도를 알 수 있어 다른 공모전들 보다 훨씬 의미 있는 수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SF 장르의 많은 작품들을 써내려갈 생각입니다. 그 시초가 되어준 김진재 SF 어워드를 개최해주시고 또 수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

감상포인트

‘A Last Person, 마지막 인간.’이라는 제목을 가진 제 작품은 제 2회 김진재 SF 어워드의 주제인 ‘우주에서 인간은 혼자인가’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하여 기획되었으며, 2100년-2120년 미래사회를 배경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르는 SF 이며 단지 흥미진진한 스토리와 재미만 가진 것이 아닌, 과학 발전과 고립된 사람, 타 종족에 대한 존중의 필요성 등의 사회적 생각을 요구하기 위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현재 우주에 대해서 매우 관심있게 보고, 새로운 생명체를 찾기 위해서,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노력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노력과 관심을 지구에도 또한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이 ‘우주에서 인간은 혼자인가’라는 주제를 읽고 들었습니다. 지구 상에는, 우주 상에는 인간만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존 화재에 대한 소식을 접한 직후 옹기에 저는 이 지구에 대한 관심이, 다른 생물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들을 존중해줄 필요가 더욱 더 있다고 생각했고, 마지막 인간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이 필요성을 이야기 하며 주제에 대한 답변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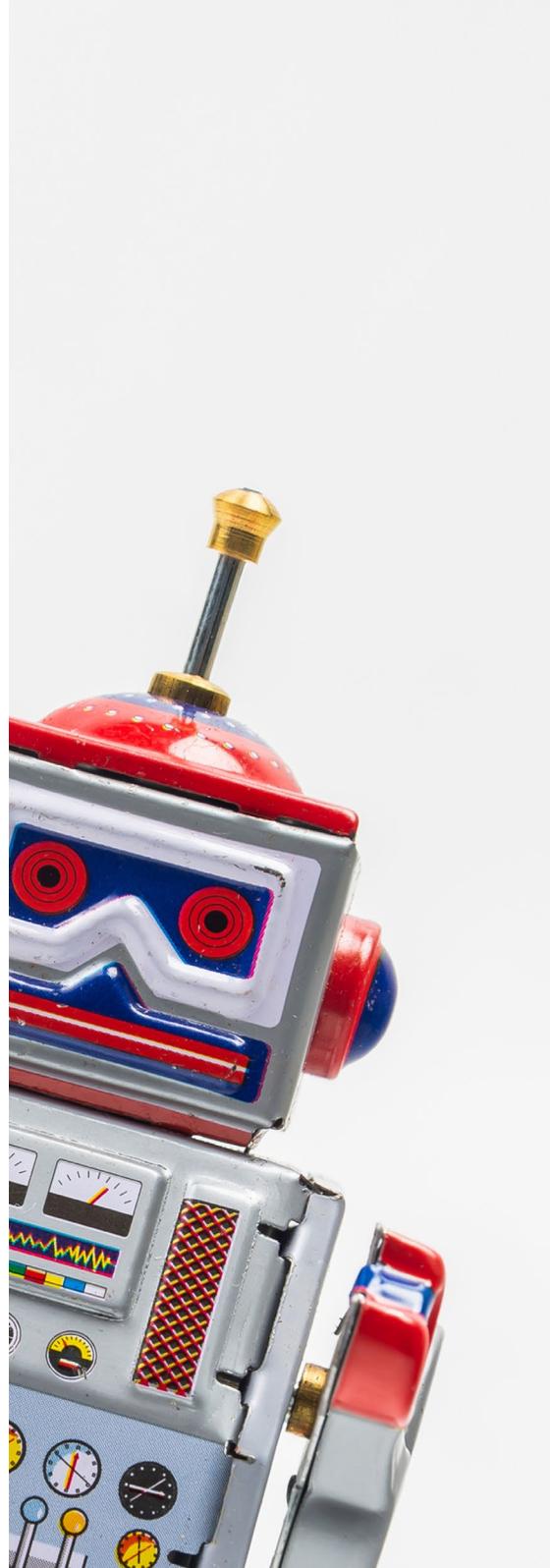
그리고 주인공의 슬픔에 관심 없어 하며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쫓는 사람들과, 결국 혼자 남겨진 주인공 등의 여러 작품 상황을 통하여

그 메시지를 비유적으로 전하였습니다. 또한 그 필요성 뿐만 아니라, 외계인의 존재와 숨겨져 있던 행성이 드러나는 장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외계인의 존재, 더 나아가 우주의 비밀을 파헤칠 수 있는 가능성과 미래가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또한 전하고 싶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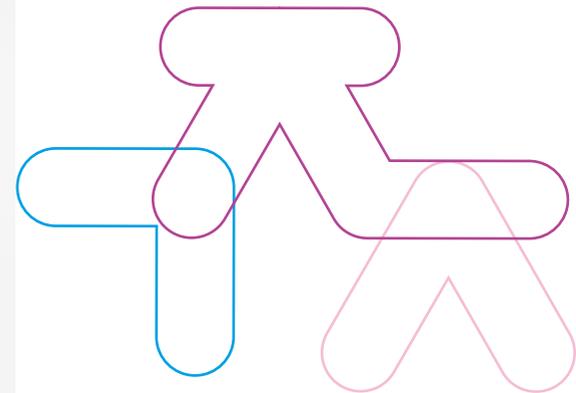
SF 이면서도 많은 메시지와 이야기를 던진 이 마지막 인간이라는 작품을 읽으며, 독자분들께서도 다양하고 새로운 생각들을 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작품의 각 문단 위에 써진 숫자는 일어난 사건순이니 작품을 이해하실때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구에는, 우주에는 '인간'만 존재하지 않는판다. 아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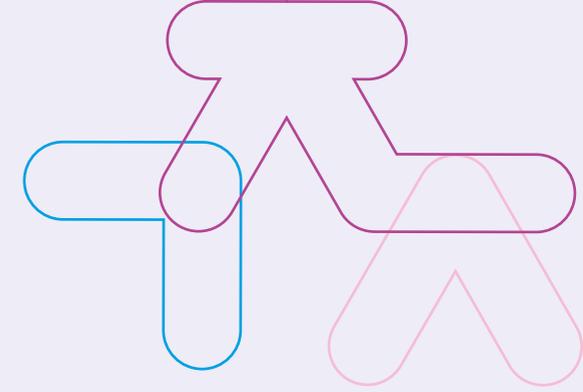
이 대목은 작품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를 가장 본질적으로 드러내는 제목이자 시작입니다. 작품의 처음을 여는 이 대목을 읽으며, 독자분들께서 마지막 인간이 전하고 싶어 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사평



심사평



21세기는 새로운 세대들의 시대입니다

- 제2회 김진재SF어워드 수상작품집에 부쳐

처음 김진재SF어워드를 만들 때, 성인부 응모 자격을 27세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에 내심 가웃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전까지 신인 SF작가를 뽑는 공모전들에서 전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첫 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데 이어 이제 두 번째까지 끝내고 나니 참으로 절묘한 결정이었다는 생각이 굳어집니다.

기성세대들은 미래SF에서나 보던 연도라서 잘 실감이 나지 않는 2020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21세기 세대들에게는 그야말로 아재들의 옛날 타령일 뿐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라떼는 말이야~'인 거죠. 2020년은 옛 세대의 '오래된 미래'가 아니라 신세대들이 생생하게 매일매일을 지내는, 살아있는 현재입니다. 김진재SF어워드는 바로 그러한 신세대들이 그리는 미래 전망을 기대합니다.

수학계의 필즈상(Field's Medal), 그리고 경제학계의 존 베이츠 클라크상(John Bates Clark Medal)은 모두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상입니다. 각 분야에서는 노벨상이나 다름없는 영예이며, 실제로 클라크상의 경우 수상자의 상당수는 나중에 노벨경제학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상의 공통점은 40세 미만인 젊은 학자에게만 수상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 26세에 상대성이론을 발표한 것처럼, 뛰어난 창의성은 젊은 사람들에게서 돋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기성의 때가 묻지 않은 채 자유분방한 상상력을 한껏 펼칠 수 있는 것이겠지요. 아직 두 번밖에 치르지 않았지만, 김진재SF어워드의 응모작들은 보면 확실히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특별히 흠잡을 데는 없으나 딱히 독창적이지도 않은 작품들보다는, 좀 거칠더라도 통통 튀는 상상력이 담긴 습작들이 많이 눈에 띄입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즐거운 고민을 거듭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요즘 화제가 된 젊은이가 있습니다. 스웨덴의 소녀 그레타 툰베리입니다. 2003년생인 그는 기후변화에 대한 기성세대들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 동맹 휴학을 주도하는 청소년기후행동을 이끌고 있습니다. '타임'지에서 '2019년 올해의 인물'로 선정하기도 했지요. 툰베리는 활동 과정에서 몇 가지 구설이 나오기도 했지만,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에 트집을 잡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툰베리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20세기는 성찰이 없는 과

학기술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기후변화부터 환경오염, 핵폐기물, 생태계 파괴, 과학윤리 등등 온갖 골치덩이들이 21세기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21세기 세대들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오랜 기간 애를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세먼지나 미세플라스틱만 해도 이미 일상적으로 우리의 생활환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기적 과학기술은 세기적 윤리 문제와 쌍둥이로 태어납니다. 21세기는 성찰이 있는 과학기술의 시대여야 합니다. 튜베리를 비롯한 21세기 세대들은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이들이 내놓는 SF스토리텔링에는 바로 그런 성찰이 배어 있습니다. 21세기 세대는 급격한 과학기술의 변화라는 환경을 태어날 때부터 마치 숨 쉬는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적응하며 성장한 인류 역사상 첫 세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들은 과학기술의 긍정적인 면들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효과들까지도 잘 체감하고 있습니다. 기성세대들은 21세기 세대를 과소평가할 게 아니라 이들이 내놓는 새로운 세계관이나 철학에 적극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김진재SF어워드야말로 바로 그런 목소리들을 낼 수 있는 훌륭한 창구입니다. 이 책자에 실린 작품들의 주제를 경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젊은이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선보이리라 믿습니다. 21세기는 신세대들의 시대입니다.

심사위원 박상준

SF 및 교양과학 전문 기획번역가, 칼럼니스트, 강연자
 <SF 거장과 결작의 연대기>(공저), <화씨451>(번역) 등 저서 발간
 SF전문출판 '오멜라스' 대표, 장르문학 전문지 '판타스틱'의 초대 편집장 역임
 (현) 한국SF협회 회장
 (현) 서울SF아카이브 대표

2020년 새로운 우주와 낯선 지구

다소 엉뚱한 질문을 해보자. 가장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누구이며, 가장 책을 많이 보관하는 곳은 어디며, 그리고 누가 그렇게 많은 책을 만드는가? 독자(소비자), 소통(중개자), 작가(생산자)로 간추리면, 아마도 먼저 대학교수와 도서관 그리고 인기 작가를 떠올릴 것이다. 얼핏 맞는 것 같지만, 지식의 전문성, 장소의 공공성과 대중의 상업성이라는 관계를 빼버린다면, 그렇지 않다. 한마디로 이러한 외형은 중요하지 않다. 해서 여기서 관점을 달리하고 싶은 것은 글자를 읽고 이해할 줄 알면서부터 시작하는 읽기의 단계와 유형, 개인적인 독서의 유용성이다. 동시에 이러한 독서의 생산자는 누구인가, 또한 그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쓰는가? 라는 물음도 독자로서는 피할 수 없기에 ...

'수용미학'의 저자 볼프강 이저의 글을 빌리면, 독자의 층위와 잠재적 수준은 반드시 독서의 양이나 효용성에 의해 가능될 수 없다. 그리고 독자는 왜, 무엇 때문에 책을 읽는가? 역설적으로 늘 독서 나아가 문화의 소비자나 이용자로만 남을 것인가, 남고 싶은가? 그렇지 않다. 읽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작가나 지식을 생산하는 자가 될 수 없듯이, 독서의 잠재력은 바로 소통과 문화의 생산성에 맞닿아 있다. 인터넷과 함께 이젠 스마트 시대로 접어들면서, 정보나 문화의 상호소통과 동시성이 확보되었다. 이젠 누구나 문화의 소비자이자 생산자 그리고 유통자가 될 수 있다.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이러한 세가지 역할이 함께 뒤섞이는 자신만의 창조적 행위는 무엇으로 이해되기보다는 어떻게 정의되는가에 따라 가치를 달리한다.

흔히들 요즘은 책이나 글을 읽지 않는 세대라고 걱정하지만, 따지고 보면 오늘날 독서는 반드시 문자만을 전제할 수 없다. 소리, 몸짓, 선과 색채 하물며 기호나 부호, 이모티콘도 소통의 수단이 되어버린 절대언어의 시대에 우린 살고 있다. 이미 다양한 매체를 통해 널리 공유되고 즐기는 현상을 너머 문화가 되었다. 그렇다면, 청소년과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새로운 차원의 독서를 진작시키고, 미래를 대비하게끔 하는 그 무엇이 필요하지 않을까! 독자이면서 작가, 문화의 소비자이면서 중개자, 창조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시작해보자. 다른 사람에 비해 앞서면서 보다 나은 생각, 엉뚱한 발상, 진지함과 열정 또한 이들로 하여금 상상력을 최대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컨셉으로 <김진재 SF 어워드>는 출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목적은 미래를 이끌 창조적 인재 발굴과 양성이다.

이로부터 어느덧 올해 4년 째를 맞는다. 그간 2회(2018, 2019)에 걸쳐 <김진재 SF 어워드> 행사를 개최했으며, 또 지난해(2019)는 처음으로 <과학독서 아카데미> 문화사업도 시작했다. 둘은 상호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현재의 젊은이들이 미래에 펼칠 무한한 가능성 제고라는 점에서는 지향점이 같지만, 방법을 달리할 뿐이다. 이를 위해 김세연 국회의원과 전호환 부산대 총장이 선대의 고(故) 김진재 의원의 유지를 받드는 데 있어 전적으로 공감했기에 이러한 사업이 가능했다.

본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실체는 바로 DRB와 부산대 도서관이다. 향토기업이 지역사회에서의 문화사업 그리고 대학이 지역사회에서의 봉사활동이 단단하게 맞물려 있다. 구체적으로는 '무엇 what'과 '방법 how'이 실천방안의 핵심이다. 이를 위한 주제는 SF(인문/예술/환경/기후/과학/기술/우주/의학/생명 등)로 정해졌으며, 잠재력이 풍부한 청소년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과정에 있어 적절한 기회 제공과 프로그램 개발이 이에 대한 호응이다. 엘리엇 페

퍼가 "SF는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기 위해 존재한다"라고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밝혔듯이, 새로운와 낮섬을 창조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운영위원으로서 그동안 행사 진행을 살펴보고, 응모된 작품을 심사하면서, 느낀 점은 이러한 기대가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간추리면, 21세기 '새로운 서사성' 확보를 꾀하는 데 있어 참가자의 열기는 물론 나름 의미있는 노력들이 돋보였다. 그 이유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예측가능하게 만드는 전혀 엉뚱한 발상과 창의성이다. 일반적인 사고나 가치관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참가자와 응모자들이 잠재적 능력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즉 누구나 할 수 있는, 실패나 잘못도 따지지 않는, 창조성과 잠재성을 키우는 열린 기회 역시 자신의 선택이자 몫이었다. 미래를 능동적으로 대체하는 잠재력은 기존의 기준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이를 가능하는 잣대는 지식이나 독서의 양이 아니라, 상상력이다. 다만 열정의 다름과 성실함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심사위원 **이상근**

비평전문 계간지 <오늘의문예비평> 동인 및 편집인
독일문예학/독일발트문학 연구와 관련 논문과 저서 발간
부산대학교 도서관장 역임
(현) 부산대학교 명예교수
(현) 라트비아대학 연구교수

2019 제2회  김진재 SF 어워드 수상작 모음집

발행처 | 부산대학교도서관

발행인 | 이수상

발행일 | 2020년 2월 1일

편 집 | 김진재 SF 어워드 공모전 사무국

사무국 | (46241)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2
부산대학교도서관 기획홍보팀

Tel 051-510-1810, 1820

Fax 051-513-9733

홈페이지 <http://ssfc.pusan.ac.kr>

<https://lib.pusan.ac.kr>

